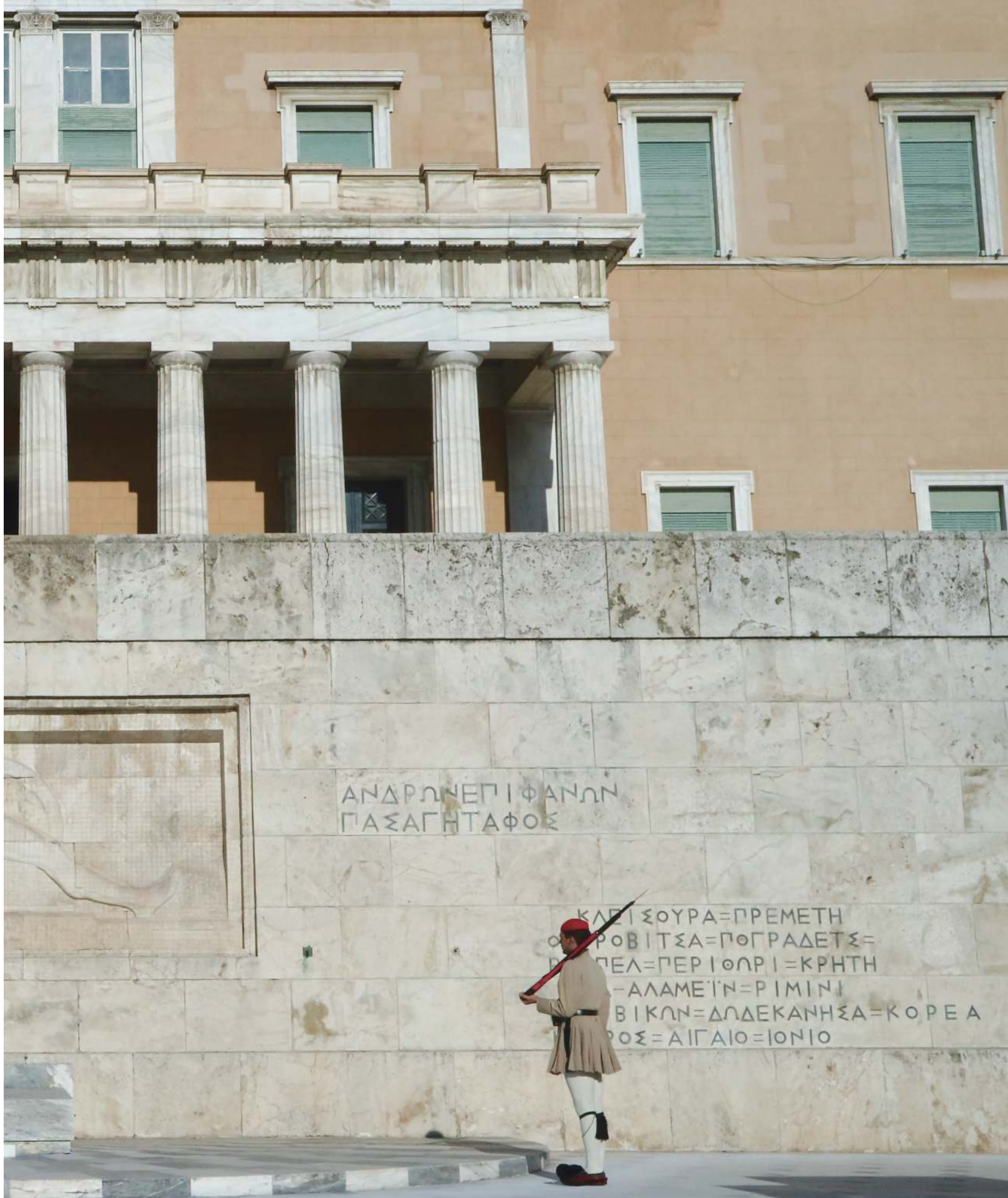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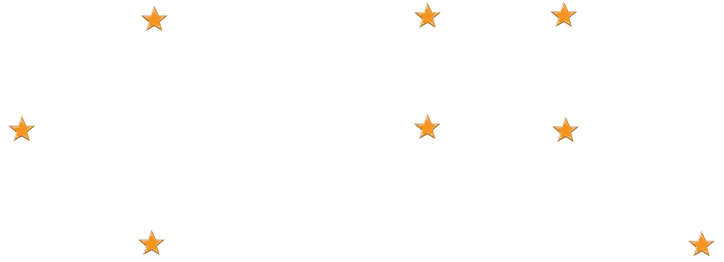




ΑΝΔΡΩΝ ΕΠΙΦΑΝΩΝ
ΠΑΣΑΓΗΤΑΦΟΣ

ΚΛΕΙΣΟΥΡΑ=ΠΡΕΜΕΤΗ
ΦΑΡΟΒΙΤΣΑ=ΠΟΓΡΑΔΕΤΣ=
ΠΕΛ=ΠΕΡΙΘΩΡΙ=ΚΡΗΤΗ
-ΑΛΑΜΕΪΝ=ΡΙΜΙΝΙ
ΒΙΚΩΝ=ΔΩΔΕΚΑΝΗΣΑ=ΚΟΡΕΑ
ΡΟΣ=ΑΙΓΑΙΟ=ΙΟΝΙΟ



Contents



08



32



36



42



43



48



50



R.O.K AIR FORCE
VOLUME 468

2017
June

공군 IN •

- | | |
|-----------------------|--------------------------------|
| 06 Pioneer's Opinion | 정녕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
| 08 기획특집① | 가장 빠르게 참전한 항공수송단, 그리스 공군을 만나다! |
| 20 포토 프레임@AF | 5월의 참모총장 동정 |
| 22 Air Force Monthly | 5월의 공군 소식 |
| 24 기획특집② | 6.25전쟁의 영웅을 찾아서 |
| 30 기획특집③ | 장마철 집안관리 TIP |
| 32 현지 장병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 호국보훈의 달 |
| 34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 공중전을 위한 지상의 정비전쟁! |
| 36 조인, 조인! | 공군학사장교회 윤광호 신임회장 |
| 40 신고합니다! | 1전비 복지대대 병장 이기주 & 일병 박진환 |
| 42 Fitness | 소중한 눈 건강관리 '황반변성' |
| 43 하늘을 향한 시선 | 6·25전쟁과 공군의 제공권 장악 |



GLOBAL & INSIGHT •

- | | |
|---------------------|----------------------------------|
| 44 Air-power Report | 대만의 훈련기 겸 공격기 'AIDC AT-3 자강(自強)' |
| 46 공군 재무관리본부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

표지(앞)
6·25전쟁 참전 그리스 공군 조종사들
사진 대위 이수희(홍보과)

커버스토리
글 대위 이수희(홍보과)

CULTURE 36,5 •

- | | |
|----------------------|--------------|
| 48 Hollywood English | 보스 베이비 |
| 50 트렌드가 보인다 | 이제 마스크도 트렌드! |

발행일자 2017년 6월 1일(통권 제468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경두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한상균
편집감수 중령 윤영삼, 소령 박윤서
기획·편집 중위 이준건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7050237)
(910-4504, 042-553-4504)

OPINION •

- | | |
|------------|------------|
| 52 생각하는 그림 | 첫 번째 용기로부터 |
| 54 담벼락 | 유산 |
| 56 책 읽는 공군 | 바벨의 개 |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Pioneer's Opinion

정녕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글쓴이는 고려대학교 졸업 후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이사, 한국인적자원 개발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EBS 이사를 맡고 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 대학원(매체경영학)에서 강의 중이며 공군정책 발전 자문 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 회의 참석차 미국을 다녀왔다. 이번 방문길에 워싱턴에 며칠 머물렀다. 나는 워싱턴에 갈 때마다 도심에 있는 내셔널 몰(National Mall)을 산책하곤 한다. 몰 중앙에 위치한 반성하는 연못(Reflection Pond) 주변을 걸으며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해 본다. 바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크스가 뛰어들었던 그 연못이다. 그리고 꼭 한번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6.25전쟁 기념공원(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이다.

워싱턴 포토맥 강가 링컨기념관 앞쪽에 세워진 6.25전쟁 기념공원은 이제 워싱턴의 명소가 됐다. 공원에는 V자 형으로 늘어선 실물크기보다 약간 큰 19명의 군인상이 자리하고 있다. 육해·공군·해병으로, 백인·흑인·히스패닉계 미국인 등 인종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극심한 고통이 적나라하게 새겨져 있다. 그래서 보는 이에게도 그 쓰라린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게 한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새겨진 동판 옆에 판초우의를 덮어선 지아이(GI)들의 일그러진 얼굴 부조 앞에서, 여행객은 정녕 자유가 공짜가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동판에는 낙동강, 장진호 등지에서 무려 54,245명의 꽃다운 젊음이 사라졌다고 적어 놓았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천천히 알지 못하는 나라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새겨진 구절이 보는 이들을 숙연케 한다.

전쟁사로 볼 때 미국 역사상 최악의 패전은 진주만 피격이다. 일본의 공군력을 과소평가하여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장진호 전투다(미 정부와 언론이 평가했다). 6.25전쟁 중인 1950년 겨울, 미 해병 1사단은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에서 중공군에 포위되어 전멸되다시피 했다. 그해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



까지 벌어진 전투는 미군 전사에도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공식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작전을 통해서 해병 1사단은 중공군 남하를 일시 지연시켰으며,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목을 놓아 불러봤다/찾아도 봤다”는 작고한 가수 현인 선생의 노래처럼 ‘군센 금순’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피난민이 남쪽으로 탈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에 있어 6.25전쟁은 잊힌 전쟁(forgotten war)에 다름 아니다. 때마침 탄생한 컬러 TV와 맞물리면서 안방까지 생중계되다시피 했던, 화려했던 베트남 전쟁에 비해 6.25전쟁은 2차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낀 미국으로서도 잊고 싶은 전쟁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28일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6.25전쟁 기념공원에서 열린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직접 읽은 축사를 통해 “5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종전 후 지금 자유와 번영 속에 살고 있다.”며 6.25전쟁은 결코 잊힌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라고 재평가했다.

다만, 승리와 패배를 떠나서 전쟁은 늘 비극적이다. 연전에 기념 공원에 설치된 부스에서 전사자의 이름을 한번 건드려 본 그날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이름을 누르면 붉은 테두리의 종이가 빠죽이 나온다. ‘조셉 C. 제르보, 육군 일병, 군번 12322768, 1931년 뉴욕주 킹스출생, 1950년 9월 13일 한국전 작전중 19세로 사망’이라고 적혀 있다. 종이에는 다시 작은 글씨로 ‘故 제르보 일병은 미 육군 1기갑사단 5연대 정찰병으로 한국전에 참전, 서부전선에서 9월 13일 적군과 교전 중 사망했다고 덧붙여져 있다. 열아홉 어린 미국청년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태평양 건너 멀고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도착한 당일 전사했다는 것을 알리는 쪽지다. 기록을 읽는 나의 마음은 순간 울컥해 왔다.

소포클레스가 말했다. “전쟁은 언제나 악한 자보다는, 선한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먼저 죽게 된다.”고.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현재도 남북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완벽한 유비무환이 필요하다. 우리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다. 우리는 여전히 적과 대치 중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늘 대비태세를 굳건히 다져야 할 것이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가장 빠르게 참전한 항공수송단,
그리스 공군을 만나!

글
중위 이준건(홍보과)



사진
역사기록관리단 제공

신화의 나라 그리스, 6.25전쟁에 참전하다



2013년 12월 4일 그리스 대통령의 헌화

여주휴게소에 가면 볼 수 있는 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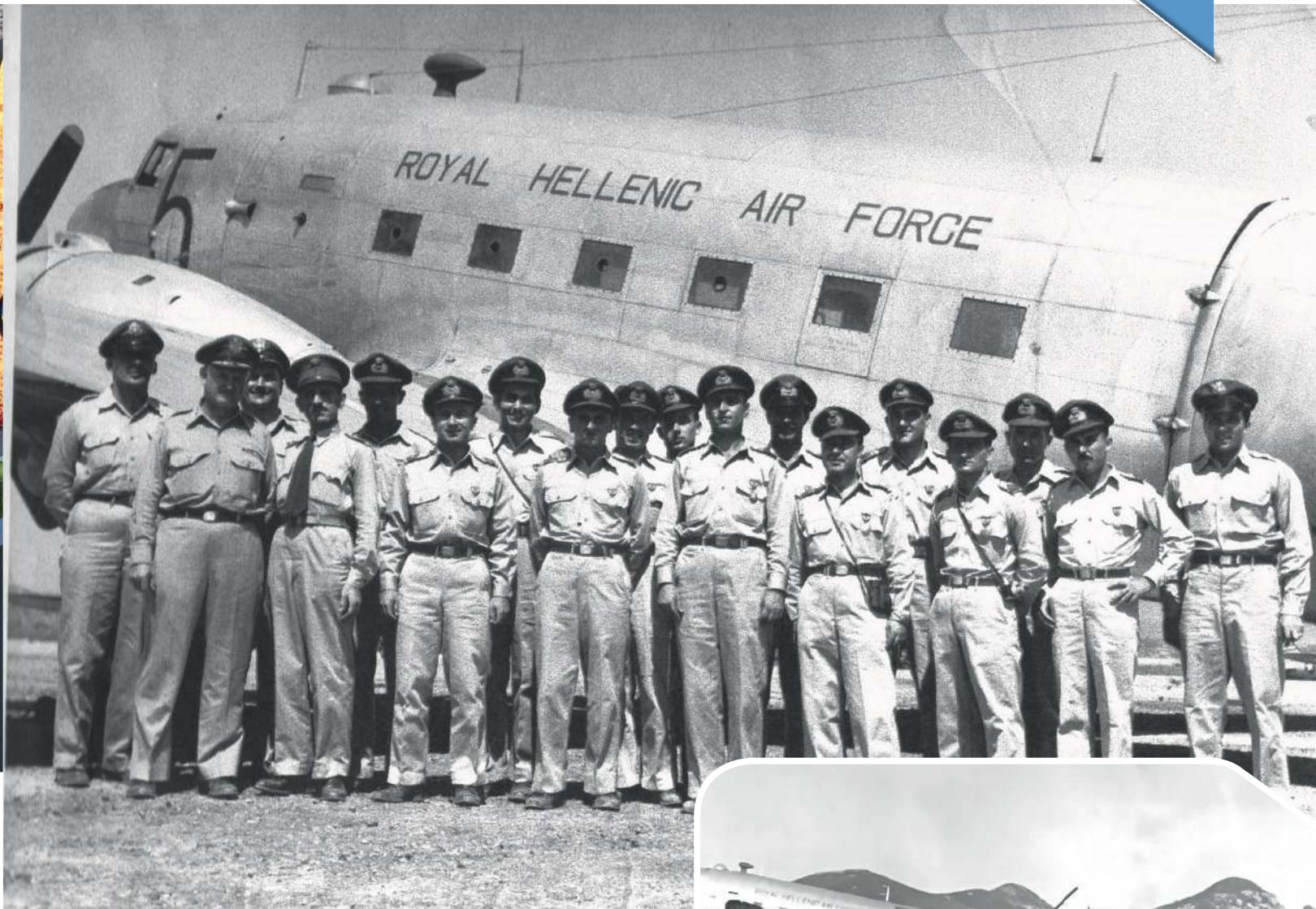
‘그리스’라는 나라를 언급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신화’다. 불후의 고전이라 불리는 그리스 신화는 한때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예컨대 지난해 SNS에서는 영상편집에 능한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그리스·로마 신화의 장면 일부를 패러디해 네티즌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는 다소 친숙하게 느껴지는 나라인 그리스가 6.25전쟁에도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여주휴게소에 가면 자유를 위해 6.25전쟁에서 산화한 그리스군을 추모하는 ‘그리스군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다. 1974년 10월 3일 건립된 이 기념비는, 지난 2013년 12월 4일 그리스 대통령이 찾아 헌화했다. 공사체로 자못 진지하게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라 쓰인 커다란 벽의 한가운데에는 전사자의 명단이 새겨진 동판이 있다. 고대 그리스 유적을 본떠 만들었다는 기념비는, 이국적인 느낌과 함께 쓸쓸한 느낌을 물씬 풍긴다.

보급품과 더불어 그들이 전해준 ‘희망’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리스가 한국에 파병한 병력은 지상군 1개 대대와 수송기 1개 편대. 그 중에서 그리스 공군은 C-47을 운용하는 제13수송단을 파병했고, 67명의 그리스 공군과 C-47 7대는 1950년 12월 한국 땅을 밟는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공군은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수송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이 참가한 첫 전투이자 대표적인 전투는 바로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미 제1해병사단과 보병 제7사단이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였던 바로 그 전투였다. 밀려드는 적의 포위망에서 미군은 수많은 부상자를 내고 있었고, 부족한 보급품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리스 공군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C-47을 즉각 출격하여 보급품을 공수하고 수많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후송한다.



악천후와 부족한 설비, 적의 맹렬한 대공화기 공격과 더불어 활주로다운 활주로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 공군은 수송임무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인다. 이들은 1955년 5월 그리스로 귀국할 때까지 총 2,916소트를 비행했으며, 7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수송했고 500만kg의 장비보급품을 공수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리스 공군 또한 피해를 입었다.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명의 전사자가 생겼고, 4대의 항공기가 추락하는 손실을 겪는다.

20세기 중반 무렵 그리스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리스는 나치 독일의 식민지였고, 1944년 독립되었을 때 내전이 발발해 5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무수한 시민들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그럼에도 그리스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UN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비슷한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는 참전용사들을 찾아 그리스로 향했다. **AF**



제13수송단이 한국에서 찍은 사진



공군 IN

기획특집 1

가장 빠르게 참전한 항공수송단,
그리스 공군을 만나다!

글

중령 용홍근(홍보과)



사진

대위 이수희(홍보과)



제13수송단의 전설이 시작된 곳 그리스 공군 제112비행단을 찾아가다



지중해의 바람과 뜨거운 햇빛이 공존하는 신화의 나라 그리스 5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한낮에 이동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장렬하는 태양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수도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알레프시나에 위치한 그리스 공군 제112비행단을 찾았다.

1

1

우리의 공군부대처럼 번듯한 정문하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한 112비행단의 첫 모습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곳이 6.25전쟁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수송기를 파견한 제13수송단의 모 기지였다는 사실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었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비행단 브리핑실에서는 비행단장(대령 Kyriakos Panagiotopoulos)과 10여명의 참전용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우리를 반겨주었으며, 2013년부터 약 3년간 NATO 파견장교로 근무하며 한국군과 같이 근무한바 있다는 크리아코스 단장은 이곳이 그리스 공군이 보유한 7개의 기지 중 가장 크다는 말로 비행단 소개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1937년에 창설된 비행단은 수송기, 헬기 등 다양한 기종을 보유하고 전술 공수, 탐색구조, 진화, 응급수송, VIP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6.25전쟁 당시 수송부대인 제13수송단이 이곳에서 창설되어 파병되었노라고 자신 있게 설명했다.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한 1950년 11월, 이곳 엘레프시나 기지에서 C-47 수송기 7대로 구성된 제13수송단이 창설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까지 11번이나 되는 중간 기착지를 경유하는 오딧세이 모험을 감행하여 한국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다. 특히, 제13수송단은 미비한 항법시설, 낮은 지형과 악천후를 뚫고 연합군 수송부대들 중 가장 먼저 한국에 도착했다는 기록을 접했을 때, 전율과 함께 이들의 평화수호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에 수송기를 파병하여 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5년 5월까지 수송임무를 담당했던 제13수송단은 4대의 항공기를 잃고 13명이 전사하는 비극을 겪었지만 김포, 대구, 백령도 등을 오가며 총 2,916소트, 70,568여명의 인원을 수송하였다는 기록에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다.



2

브리핑을 마친 비행단장, 참전용사, 장병 일행은 비행단 입구에 위치한 참전기념비를 참배하였다. 이곳은 비행단 임무를 위해 순직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비행단장은 “고대국가 때부터 수많은 전쟁을 치른바 있는 그리스인들은 나라를 위해 순직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죽든 다 같다”며 6.25전쟁에서 희생하고 순직한 장병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비행단장은 더하여, “한국공군에서 비행단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곳에 자리한 참전 영웅들의

마지막을 잘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임무”라는 말을 마지막에 남겼다. 이들이 진정 제우스의 후손들이 됨이 충분함을 느꼈다.

여전히 햇빛은 강했다. 이 빛은 6.25전쟁 당시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소리 없이 임무를 수행했던 그리스 장병들을 비롯한 수많은 연합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을 것이다. 높은 하늘아래서 내려찍는 소중하고 밝은 빛이 언제나 밝게 빛나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지 않기를 바랐다. **AF**



112비행단장 대령 크리아코스(Kyriakos)



공군 IN

기획특집 1

가장 빠르게 참전한 항공수송단,
그리스 공군을 만나다!

글
중령 용홍근(홍보과)



사진
대위 이수희(홍보과)



여전히 생생하게 그 전쟁을 회상하는 그리스 참전용사들을 만나다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마르셀은 차 한 잔과 곁들여 먹은 마들렌 과자 한 조각을 통해 오랫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어린시절을 떠올린다. ‘처각’하고 부서지는 과자와 함께 머릿속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기억들. 이처럼, 잠시 잃어버렸을지언정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특히나 6.25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는, 전쟁의 모든 순간들이 그러하리라.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그리스 공군 참전용사들을 만났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1분간 묵념합니다.”

6.25전쟁에 대한 회상을 부탁하자, 6.25전쟁 당시 수송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조지 판델리우스(Capt. Geroge Pandelides) 예비역 대위는 노구를 일으켜 세우며 큰 소리로 외쳤다. 92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6.25전쟁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내는 것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 그는 무릎이 불편한지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그 모습에는 당당한 풍채와 위엄이 느껴졌다.

AF: 몸이 불편해 보이십니다.

판델리우스: 지금 내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은 52년인가, 53년인가? 내가 물던 수송기가 불시착을 하였는데, 그때 착륙 충격으로 인해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에 불이 났지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항공기가 우수하지 않아 기지 접근 및 이착륙 등을 육안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지금 지팡이로 걷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판텔리우스 예비역 대위

AF : 6.25전쟁 당시 상황을 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판텔리우스 : 그리스에서 한국까지 20일(실제론 21일)이 넘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가야하는지 당시엔 궁금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보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6.25전쟁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했고, 지금은 그때의 모든 기억이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AF : 작전 임무 중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판텔리우스 : 출발부터 기억이 납니다. 한국까지 가기 위해 중간에 많은 기착을 해야 했어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바다를 건너야 했기에, 지형상 바다로 둘러싸인 그리스에서의 비행연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그때 당시에도 항법사가 있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임무는 출격 한 소리 한 소리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속도가 느린 수송기였으므로 대공포에 대한 두려움도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AF : 지금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판텔리우스 : 제 기억으로 당시 100여 명의 조종사중 5명 정도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쩌면 다 죽고 나만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계평화와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한 모든 그리스 용사들은 당시 상황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지금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이 잘 살고 있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인들이 평화를 수호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군 IN

기획특집 1

가장 빠르게 참전한 항공수송단,
그리스 공군을 만나다!



AF : 그리스 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할 당시를 회상해 주실 수 있는지요?

출라키스 : 저는 그때 20살이었고, 소위였어요. 당시에는 어린 나이였고, 처음에는 장난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을 많이 했지요. K-2, K-16, K-54¹⁾ 등 많은 지역을 비행했어요.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잘 지나가서 지금 살아있네요.

AF : 6.25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라키스 : 그리스의 과거는 전쟁의 역사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부터 그리스는 늘 전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임했던 것에서 그리스 공군의 6.25전쟁 참전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해요.

AF : 제가 듣기로 한국에서 치료 치료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라키스 : (웃으면서) 몇 년인지는 기억이 안나요. 제가 임무 중에 K-54에 도착한 적이 있는데, 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한국군이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의사는 치과 의사사가 아닌 수의사였어요. 마취를 안 하고 이를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우 아팠어요.

1) K-00는 “K-Number”로 연합군이 비행기지를 호칭하기 위해 정한 명칭으로, 인터뷰에 응한 그리스 참전 조종사 모두가 지명보단 K-00로 칭하였다.

주름살이 곳곳에 패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의 아키보스 출라키스(Capt. Akkrivos D. Tsolakis) 예비역 대위와 이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는 최근 한국에 방문했는데, 모든 것이 폐허 상태였던 전쟁 당시와 크게 달라진 정경을 보며 놀라는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이 그러했지만, 그의 눈빛 역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AF : 6.25전쟁에 대하여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출라키스 : 백령도에 임무를 자주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내리면 30분 정도 머물렀고, 주로 포로나 병사들을 수송하는 임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썰물과 밀물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으며, 백령도에서 제주도까지도 비행을 했었지요. 백령도에는 약 30번쯤 랜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라키스 예비역 대위

AF :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출라키스 : 2013년에 그리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참전용사 수행단으로 선발되어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를 방문했는데, CEO께서 회사를 설명할 때 분기당 약 280억 유로(약 34조)의 매출을 기록한다고 하여 많이 놀랐지요. 우리가 지킨 이 나라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AF : 6.25전쟁이 그리스 공군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라키스 : 2013년 방문 당시 관문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자신의 몸 반쪽을 건물에 숨기고 있는 모습에 매우 놀랐습니다. 늘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도 전쟁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그리스 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한국의 평화를 위해 참전했던 만큼, 현재의 남북긴장 상황이 하루 속히 끝나고 영구적인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6.25전쟁에 참전한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그때의 상황을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그들.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 동쪽의 어느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일생의 자부심이자 잊지 못할 '전쟁의 기억'이다. 인터뷰에 대답할 때 가지런히 모아놓았던 그들의 주름살 배긴 손을 보니 알 수 있었다. 저 손이, 저 작고 단단한 손이 적의 대공포를 뚫고 용감하게 수송기를 조종했던 손이로구나... **AF**



활주로 위의 바퀴자국처럼 새겨진, 그들의 역사

그리스 공군의 참전 흔적을 찾아서

모든 존재는 흔적을 남긴다.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바퀴자국을 남기듯 말이다. 하물며 '전쟁'이야 말할 것이 있으랴. 6.25전쟁도 그리스 곳곳에 전쟁을 기억하는 역사의 흔적들을 남겼다. 물론 많은 이들이 항상 주목하는 장소이거나 유물은 아니다. 오히려 쓸쓸함이 묻어나는 외로운 모습이 비치곤 했다. 그러나 풍경 속에 스며든 전쟁의 기억들은, 6.25전쟁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날의 함성을 전하고 있었다.

신타그마 광장 무명용사의 비

그리스 아테네에는 몇 개의 유명한 광장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회의사당이 있는 신타그마 광장이다. 신타그마는 그리스어로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헌법을 처음으로 공포하여 신타그마 광장이라 불린다. 신타그마 광장 국회의사당 앞에는 무명용사의 비가 있고, 그 앞에는 2명의 군위병이 24시간 이 무명용사의 비를 지키다. 또한 매주 일요일 11시에는 군악대를 동반한 교대식을 진행하는데 아쉽게도 취재팀이 찾아간 일요일에는 신타그마 광장에서 자전거 대회가 열려 군악대와 함께하는 교대식을 보지는 못했다.

다만 매 정각에 진행되는 교대식은 볼 수 있었는데, 군위병은 빨간 모자에 하얀색 군복인 그리스 전통 군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 쓰고 있는 빨간 모자는 그리스·터키 전쟁에서 전사한 그리스인들의 피를 상징하고 모자에 달려있는 길쭉한 끈은 그리스인들의 눈물을 상징한다. 입고 있는 조끼는 그리스의 국교 그리스정교회를 뜻하고, 치마의 380개 주름은 터키가 그리스를 지배한 380년을 뜻한다. 군위병들은 또한 조금 특별한 군화를 신고 있었는데, 군화 밑창에는 60개의 못이 박혀있고 그 무게가 한쪽에 4.5kg이나 된다.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7월, 8월의 한여름보다 더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들은 양털로 만든 두꺼운 전통의상을 입고서 무명용사의 비를 지키고 있었다.

무명용사의 비에는 참전지역과 나라명이 적혀있었고 공감팀은 'KOPEA'라고 적힌 비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KOPEA'는 그리스어로 '코레아', 즉 한국을 뜻한다. 그리스군이 6.25전쟁에 참전해 UN군을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었다.



파파구(Papagou)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서

아테네시 파파구(Papagou)에 위치한 6.25전쟁 참전기념비는 큰 도로에서 10분 정도 골목을 돌아 그리스 군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파파구' 지역에 세워져 있었다. 철원 땅에서 피 묻은 흙을 가지고 와서 묻었으며, 한국이 재원을 부담하고 그리스가 부지를 제공하여 건립한 참전기념비는 2003년 6월 25일 기공식을 거쳐 이곳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펜스에 둘러싸인 채 굳게 잠겨있는 문을 보니 '평소에 기념비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리인을 통해 굳게 잠겨 있는 문을 열고 기념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가운데 주 기념비를 좌우로 양쪽 비석에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 칸에는 13명의 공군 전사자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장교부터 부사관·병사까지 계급도 나이도 이름도 다양했다. 잘 알지도 못했던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다양한 그리스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6.25전쟁에 참전해서 공군 조종사로서 수송임무를 맡았던 예비역 대령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파나가리스 빌(Panagaris Bill). 그가 6.25전쟁에 참전했을 때만 해도 그의 계급은 소위, 24살이었다. 그는 당시의 한국을 이렇게 회상했다. "제가 참전했을 때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국민들이 많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주식으로 고기를 먹는데 한국인들이 고기를 먹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서 초대할 경우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6.25전쟁 당시 김포와 대구기지 등 한국 전역에서 비행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베리아의 칼날 같은 바람이 정말로 차가웠는데 한국 군인들은 그런 날씨에도 힘든 기색 없이 작전을 수행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리스는 UN회원국으로 당연히 6.25전쟁에 참전해야 했고, 저는 그리스 공군 장교였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60여 년 전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세기 만에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참으로 뿌듯하고 반가웠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 내 나라는 아니지만 내 나라인 것처럼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만큼 혹은 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그리스 노병 파로스(Farros)의 개인 박물관

한편 우리는 수소문 끝에 한국을 자국처럼 사랑하는 그리스의 한 노병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찾아 나섰다. 이오니아의 푸른 해변이 아름다운 그리스의 피루고스(Pyrgos) 지역에 살고 있는 6.25전쟁 참전 용사 파로스(Farros)를 만나러 우리는 300km가 넘는 드넓고 광활한 유럽의 대지를 달려 갔다.

파로스 할아버지를 처음 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외투 왼쪽 팔에 달려 있는 '태극기'였다. 대한민국을 자국처럼 생각하고 아낀다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된 데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20세의 나이에 통역장교로 지원하여 참전했다.

노병은 부산에서 통역장교(당시 중위)로 미군과 한국군과의 작전을 지원했다.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유창하게 영어실력을 뽐내던 노병은 당시에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통역장교로 6.25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의 아내 또한 6.25전쟁에 간호사로 함께 한국에 왔지만, 지금은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상에 누워계신다는 안타까운 말을 전했다. 또한, 노병과 함께 참전한 동료들 중 부산에서 작전을 지원한 동료들은 다수가 사망하기도 했는데, 눈물을 삼키며 부산 UN기념공원에서 기려지고 있는 그들과의 기억을 회상하는 노병의 모습을 보며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파로스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개인박물관은 이오니아 해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피루고스의 한 언덕에 있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네 개의 깃발과 기념비. 그것은 바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노병이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자 만든 것이었다. 네 개의 깃발은 태극기, 그리스기, 성조기, 유엔기였다. 옆에 있는 기념비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과 함께 그리스군의 참전 현황들이 적혀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리스 공군장병에 대한 감사함이 크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박물관 내부에는 파로스 할아버지가 일생 동안 모은 6.25전쟁 관련 기록들과 작전일지, 당시 군인들이 입고 쓰던 군복, 군장류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수많은 전시품들은 당시의 치열한 현장의 느낌을 전하기에 충분했는데, 박물관을 30분 정도 둘러본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 막대한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자 후배 군인으로서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준 참전국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을 느꼈다.

참혹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노병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그 깊은 울림 속에는 당당함과 자부심이 함께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스가 6.25전쟁에 참전한 것은 정말 올바른 판단이었으며, 당시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16개의 참전국 용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한국에게 동정심과 우정을 느낍니다.”

한편 노병은 한국과 그리스에 참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라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비슷하게 전쟁의 아픔을 겪었으며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은 것도 비슷하다. 다만 과거엔 한국의 상황이 더 열악했다면, 이제는 그리스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는 게 그가 말한 다른 점이였다.

“당시 그리스 군인들은 한국에 교회와 고아원을 설립하여 군사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적 지원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근처 종교시설에서 음식을 먹고, 고기를 구워 그들의 배를 채워주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해서 ‘한강의 기적’까지 만들어내는 나라가 될 수 있었잖아요. 또한, 한국인들은 노인을 공경하는 나라로 그리스인들에게는 여러모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들을 보아도 그런 점이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한국인을 만나니 조만간 내가 자국민만큼 사랑하는 한국에 다시 방문하고 싶어집니다.”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는 파로스 할아버지. 그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리스인은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훗날 생을 마감하게 될 때, 나는 내가 참전했던 나라, 한국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AF**





📷 공군본부 체육대회 주관

참모총장은 5월 17일(수),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공군본부 체육대회 개회식을 주관하고 경기를 함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동안 맡은바 임무완수를 위해 헌신해 온 장병과 군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은 팀워크 팀(군참부·시설실·의무실·군종실)이 차지했으며, 이에 못지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헌신 팀(인참부·기무부대)과 자존심 팀(연구단·법무실)이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했습니다.



📷 제227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 주관

참모총장은 5월 2일(화),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제227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을 주관하고 신임 하사들과 훈련 관계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스스로의 막중한 역할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며, 군인으로서, 간부로서 본분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참모총장은 4월 27일(목),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양로원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참모총장은 공기청정기와 에어매트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으며, 군악대의 특별 위문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AF**



June 2017 www.airforce.mil.kr



교육사, 공군 헌병 특수임무요원 대테러 시범훈련

교육사령부는 5월 2일(화) 공군의 대테러 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헌병 특수임무요원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테러 시범훈련을 실시하였다.



유도탄사, 전반기 방공유도탄 사격훈련

방공유도탄사령부는 4월 27일(목) 방공유도탄 부대의 종합 전투력 향상과 실전에 대한 자신감 고취를 위한 '17년도 전반기 방공유도탄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1전비, 10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축하 시상식

제1전투비행단은 5월 10일(수) 제189비행교육대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축하하는 비행안전 시상식을 열었다.



3훈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제3훈련비행단은 5월 2일(화) 퇴근길에 나선 간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5비, Space Challenge 2017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5월 7일(일) Space Challenge 2017 부산·울산·경남 동부지역 예선대회를 실시하였다.



8전비, 헌혈증 5000장 기부

제8전투비행단은 5월 4일(목) 5년 동안 모은 헌혈증 5000장을 원주시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기부하였다.



10전비, 도박중독 예방교육

제10전투비행단은 5월 12일(금)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팀장 김금안 강사를 초빙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11전비, 하계 약기상 대비 군·관 작전 기상 세미나

제11전투비행단은 5월 12일(금) 하계 재난 기상에 대응하고 기상 지원 업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군·관 작전 기상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15비, 주민초청행사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5월 15일(월) 주민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주민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16전비, 전입신병 부모초청행사

제16전투비행단은 5월 12일(금) 공군과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입신병(병773기) 부모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18전비, 강릉시 대관령 산불진화 요원투입

제18전투비행단은 5월 6일(토)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전 장병을 투입하였다.



20전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제20전투비행단은 4월 27일(목) 인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해미면 인근 농가에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2

6.25전쟁의 영웅을 찾아서

글

소령 박윤서(홍보과)



사진

중사 조수민(홍보과)



살아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설, 김두만 장군(제11대 공군참모총장)을 만나다

올해 1월, 한 예비역 장군의 평전이 출간되어 화제가 되었다. “단순히 개인문집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군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공군 1세대 항공인들의 투혼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라는데,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이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던 걸까? 바로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기록하고, 1951년 10월 단독 출격 작전, 1952년 1월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등 6.25전쟁에서 활약한 김두만 장군이 주인공. 6.25전쟁 참전용사인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기 위해 용인 수지에 있는 김두만 장군 자택을 찾았다.

AF_F-51 무스탕 전투기를 처음 탔을 때 느낌은 어떠하셨습니까?
성능은 우수하지만 조종하기 어려운 항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격함에 있어 부담이나 걱정은 없으셨는지요?

김두만 장군 1950년 10월 초하루에 (F-51로) 첫 비행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건국기(T-6) 고등훈련기를 탔었는데, F-51을 처음 타니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온몸에 완전히 다른 중압감이 느껴졌는데 순간 '이것이 진짜 비행기다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나중에 제트기도 조종을 해봤지만 F-51때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어요. 속도는 빠르지만 오히려 쉬웠지.

나는 T-6도 자습으로 비행을 익혔어요. 10명의 조종사들이 F-51을 인수하러 일본에 가야했거든. 김정렬 전 참모총장님이 6월 26일 밤에 T-6를 탈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나는 빨리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 뿐이라서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비행을 하게 됐지요(북한군 남하를 막기 위해). T-6로 폭격임무에 나섰는데 죽을 고비가 서너 번 있었어요. 기체가 스핀에 들어갔는데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겨우 수습해 살아 남았고, 북한군 대공포화에 피탄되었는데 다 급소를 피해서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F-51을 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임무하기가 쉬웠어요. 빠르지, 무장 있지. 그걸 타니까 든든해서 겁날 게 없었어요.

AF_전쟁 중에는 동료들이 출격했다 귀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조종간을 잡으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두만 장군_많은 동료들이 전사했어요. 가장 충격을 받았던 때는 (편대장으로서) 내가 데려간 3번기가 피탄되었을 때였어요. 정신이 반쯤 나가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겠다고요. 주위를 돌면서 잔해라도 보려고 했는데…추락하는 건 봤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때 정말 정신없이 비행하면서 기지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임무가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 난 비행기가 좋아서 비행기를 탔고, 또 비행기를 탈 때가 제일 행복해요. 또, 전투조종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딴 헤스 소령(당시 계급)과는 2-30회 가량 같이 출격했어요. 그런데 미 공군 조종사들이 임무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모범적이었어요. 프로 정신이랄까, 같이 출격하면서 임무 중에는 조종사로서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편대장이 되면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했지요. 강릉에서는 쪽 편대장을 했는데, 항상 그런 생각으로 임무에 임하니 공포를 느낀다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AF_강릉기지에서 우리 공군이 단독작전을 하게 되면서 편대장으로서 임무를 하셨는데 그전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김두만 장군_(미 공군 편대장의) 편대원으로 임무할 때는 지시에 충실히 따랐어요. 당연히 그래야 했고, 내가 편대장이 되고 나서는 항상 '전투 조종사로서 부끄러움 없이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만 출격했지요. 우리 편대는 내 신조대로 임무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참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AF_100회 출격을 달성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김두만 장군_별로 생각나는 것은 없어요. 곧이어 승호리철교 폭격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다른 생각은 별로 해본 것이 없어요.

AF_그런데 100회 출격을 달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군님을 교관으로 후방의 사천기지에 보냈습니다. 빨리 훌륭한 조종사를 많이 양성해서 전선으로 보내야겠다는 지휘부 판단을 내렸던 것인가요?

김두만 장군_당시 미국 공군은 100회를 출격하면 후방으로 돌려보내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전투에 참가하다가 우수한 전투조종사를 잃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빨리 그 경험을 후방에서 후배들 양성할 때 쓰게끔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군 지휘부에서도 그런 제도를 본뜬 거죠. 젊은 후배들에게 전투경험을 잘 전수해서 강릉에 보내라는 건데, 내가 대대장인데 교관이 나를 포함해 둘 뿐이었어요. 둘이서 10명을 매일 비행시켜야 하니까, 어떨 때는 F-51로 하루에 8번씩 비행을 해야 했어요.



AF_최근 안보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쟁 영웅으로서 공군 후배들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김두만 장군_현재 안보상황은 참 심각해요. 그들은 초치일관 무력통일을 노리고 있는데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 인권을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려면 다른 게 없지요. 바로 힘이 있어야지요. 다만 아주 치명적인 핵무기가 북한 손에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해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유사시에는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해요. 다만, 전적으로 미군에게만 의지해서는 안돼요. 우리의 힘을 기르는데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탄도탄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공군은 방공체계를 갖고 있고 강력한 타격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 점을 인식하고 전투조종사를 비롯한 모든 요원들이 세계 톱클래스가 돼야 해요. 특히 공군의 핵심전력인 전투조종사들이 정신력, 체력, 전문성을 기르는데 더욱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AF**

참고자료

김덕수(2017년), '항공정비록', 21세기북스



공군 IN

기획특집 2

6.25전쟁의 영웅을 찾아서

글

중위 이준건(홍보과)



사진

하사 김재겸(홍보과)



단순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입니다 ‘T-6’ 건국기를 소개합니다

앞서 우리는 6.25전쟁 참전용사를 만나보았다. 6.25전쟁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쓴 그분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일 터. 그런데 조종사들의 이야길 듣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6.25전쟁에서 활약한 전투조종사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항공기가 있을까?’ 그 답은 ‘있다’이다! 국민의 염원과 신뢰를 상징하는 훈련기 T-6가 바로 그것. ‘T-6기획전시전’을 준비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안태현 공군 박물관장을 만나 T-6(건국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F_6.25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지난 올 6월, 공사 박물관에서는 T-6 기획전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전시전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태현 관장 상설 전시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를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진행하는 전시가 기획 전시죠. 국민과 공군이 상호신뢰 속에서 소통했던 역사를 보여주고자 이번 T-6 기획전시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AF_T-6는 '국민성금헌납기'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열망한 국민들이 항공기 구입을 위한 모금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시전에서는 어떤 측면을 주로 강조하고 있나요?

안태현 관장 말씀하신 대로, T-6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건국기'로 명명된 이후 공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화합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전에서는 더 심층적이고 다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했습니다. 항공기 헌납운동과 건국기에 대한 소개에서 한발 더 나아가, T-6를 직접 조종했던 이배선 예비역 대령·김두만 예비역 장군 등의 증언을 통해 '건국기에 대한 조종사들의 기억'을 들여다봅니다. 또, 당대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었던 T-6의 '훈련기로서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획전시전의 순서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항공기 헌납운동과 건국기에 대해 소개하고, 2부에서는 T-6에 대한 조종사들의 증언을 들려주며, 3부에서는 T-6의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AF_건국기를 다각도에서 조명한 것이 인상적이네요. 관장님께서 생각하는 건국기의 역사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태현 관장 자주국방을 염원한 국민들의 염원이자, 국민과 공군이 상호신뢰 속에서 소통했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항공기 모금운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국무회의록 제84회 [국방항공기기금 모집에 관한 건]을 통해서인데, 이게 1949년 9월 21일에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군 창설일은 1949년 10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십시오. 공군 탄생을 앞두고 자주국방을 위해 대규모 항공기 모금운동이 벌어지는 광경을... 저는 건국기가 대한민국 공군의 탄생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F_그러고 보니 작년 10월에는 건국기가 국가 등록문화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건국기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결과라고 봐도 될까요.

안태현 관장 그렇습니다. 무스탕과 더불어 건국기가 작년 10월 20일, 국가 등록문화재가 되었습니다. 공군의 군사재였던 T-6가 국가의 문화유산이 된 것이죠. 등록문화재가 되면 국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군의 위상이 올라가는 게 크나큰 장점이지요. 이로써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공군의 항공기는 국산 1호 항공기인 '부활호',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인 'L-4'에 더하여 총 4대가 되었습니다. 모두 공군사관학교에 전시 및 보존되어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AF_마지막으로 공군 장병 및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안태현 관장 오늘날의 역사 연구는 거시사에서 미시사로, 다시 생활사로, 기록의 역사에서 구술의 역사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 또한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사실 이번 전시전을 준비하면서 T-6에 대한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는 데 힘이 들었습니다. 거시적인 자료는 남아있었지만 T-6와 관련된 흔한 사진 한 장, 개인의 일기 한 줄을 구하기가 어렵더군요. 사진, 포스터, 전단지, 기념품 등 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일부가 되고 연구자료가 됩니다. 그 점을 잘 인지하셔서, 조금 뒤엔 역사가 될 자그마한 것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군의 역사는 근현대사에 일관되어 있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언급했듯이 공군 장병들이 개개인의 역사와 일상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존한 자료를 공군 박물관에 기증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고요. 하하! **AF**



그때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던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초기 항공기의 역사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공군의 전력은 미약했다.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북한 공군과는 달리 훈련기와 연락기밖에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비로소 전투기(F-51D)가 도입됐지만, 10여 대에 불과해 임무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공군은 적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고, 그 결과 값진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우월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항공기보다 우월했던' 대한민국 공군 초기(初期)의 항공기들.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며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초기 항공기를 자세히 알아보자!

1.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L-4'



길이	폭	높이	최대속도	항속거리	무 장	승무원	제작사
6.8m	10.7m	2m	137km/h	306km	없음	2명	Piper (미국)

흔히 '연락기'라는 수식어가 붙는 L-4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대표적인 항공기였다. 주로 연락과 정찰용으로 사용되어 '메뚜기 (grasshopper)'라는 별명이 붙어있으며, 우리 공군의 전신인 항공기 지사령부에서 1948년 9월 4일 미군으로부터 10대를 인수받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군용항공기가 되었다. L-4 항공기는 1948년 10월 여수·순천사건 진압작전을 비롯하여 1949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등에서 정찰, 긴급 연락, 지휘관 수송 등의 임무에 투입되었다.

1950년 6.25전쟁 초기, 변변한 전투기 한 대 없었던 공군은 L-4 항공기 후방석에 정비사를 탑승시켜 수류탄과 박격포를 공중에서 직접 투하했다. 정찰, 전단 살포 등의 임무와 더불어 조종사 양성 훈련도 수행했다. 이후 1954년 L-19 연락기가 도입되면서 퇴역했고, 공군에서는 L-4 항공기를 공군군사제 1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문화재청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라는 역사적 가치와 공로를 인정하여 등록문화재 제462호로 지정했다.

1948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L-4의 항속거리로는 광주에서 여수까지의 왕복비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항속거리가 L-4보다 더 긴 항공기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미군 당국은 '보초(Sentinel)'라 불리는 L-5 항공기 10대를 우리 공군에 공급한다. 그렇게 1948년 10월 14일 공군에 도입된 L-5는 L-4와 동일하게 정찰, 연락, 요인 및 환자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 6.25전쟁 발발 직전에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에 활용됐다. L-5는 L-4에 비해 속도와 상승력, 비행거리 등이 우수한 면모를 보였으나, L-4와 마찬가지로 자체 무장은 없었기 때문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L-5를 전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육군의 비주카포를 장착하여 대지(對地) 공격을 실행했다. 1953년까지 총 14대가 도입·운용됐으며, 1955년에 퇴역했다. 공군군사제 2호로 지정됐다.

2. L-4의 업그레이드(Upgrade) 항공기, 'L-5'



길이	폭	높이	최대속도	항속거리	무 장	승무원	제작사
7.3m	10.4m	2.4m	209km/h	675km	없음	2명	Stinson (미국)

3. 국민의 염원과 신뢰를 담은 훈련기, 'T-6'



길이	폭	높이	최대속도	항속거리	무 장	승무원	제작사
9.0m	12.8m	3.9m	340km/h	1,245km	기관총 : 7.76mm×2	2명	North American (미국)

1949년 9월 국회와 언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항공기 모금운동'을 통해 모금된 국민성금(약 3억 5천만 원)으로 1950년 3월 캐나다를 통해 대한민국에 도입된 항공기이다. 1950년 5월 14일 여의도기지지에서 T-6 항공기헌납 및 명명식이 거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T-6를 가리켜 '건국기(建國機)'라 명명했다. 각 항공기에는 구입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각도와 사회단체의 이름을 새겼다. 자주국방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공군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항공기로, 공군군사재 3호이며 2016년 10월 20일 등록문화재 제667호로 등록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측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날개에 12.7mm 기관총 6문이 탑재되어 있고 5인치 로켓과 폭탄 등을 무장할 수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7월 2일 우리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 받은 최초의 전투기로, 전쟁 기간 동안 약 8,400여 회 출격했다. 특히, 1952년 1월 15일 UN공군에서 수백 회의 출격에도 성공하지 못한 승호리 철교 차단 임무를 단 23회 출격으로 완수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용맹을 크게 떨쳤다. 평양 대포격 작전과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등 결정적 항공작전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공군군사재 제4호이자 T-6와 함께 작년 10월 20일 등록문화재 제666호로 등록됐다. 1957년 퇴역했다.

F-51과 관련해서는 딘 헤스 소령(당시 계급)의 '신념의 조인' 일화가 유명하다. 6.25전쟁 당시 우리 공군의 조종사들이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격하겠다고 각오를 다지자, 감동한 딘 헤스 소령은 직접 자신의 애기(愛機)인 F-51D 18번기를 타고 모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250회에 달하는 출격을 실시했다. 이때 그가 자신의 애기에 새겨놓은 글자가 바로 'By Faith I Fly', 즉 '信念의 鳥人'이다. 이후 신념의 조인은 우리 공군 전투조종사들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정신'으로 계승됐다. **AF**

4.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F-51D'



길이	폭	높이	최대속도	항속거리	무 장	승무원	제작사
9.8m	11.3m	4.2m	770km/h	2,100km	• 기관총 : 12.7mm × 6 • 로켓 : 127mm × 10 • 폭탄 : 907kg	1명	North American (미국)

참고자료

권주혁(2010년), '한국공군과 한국전쟁', PUREWAY PICTURES
공군본부(2010년), '공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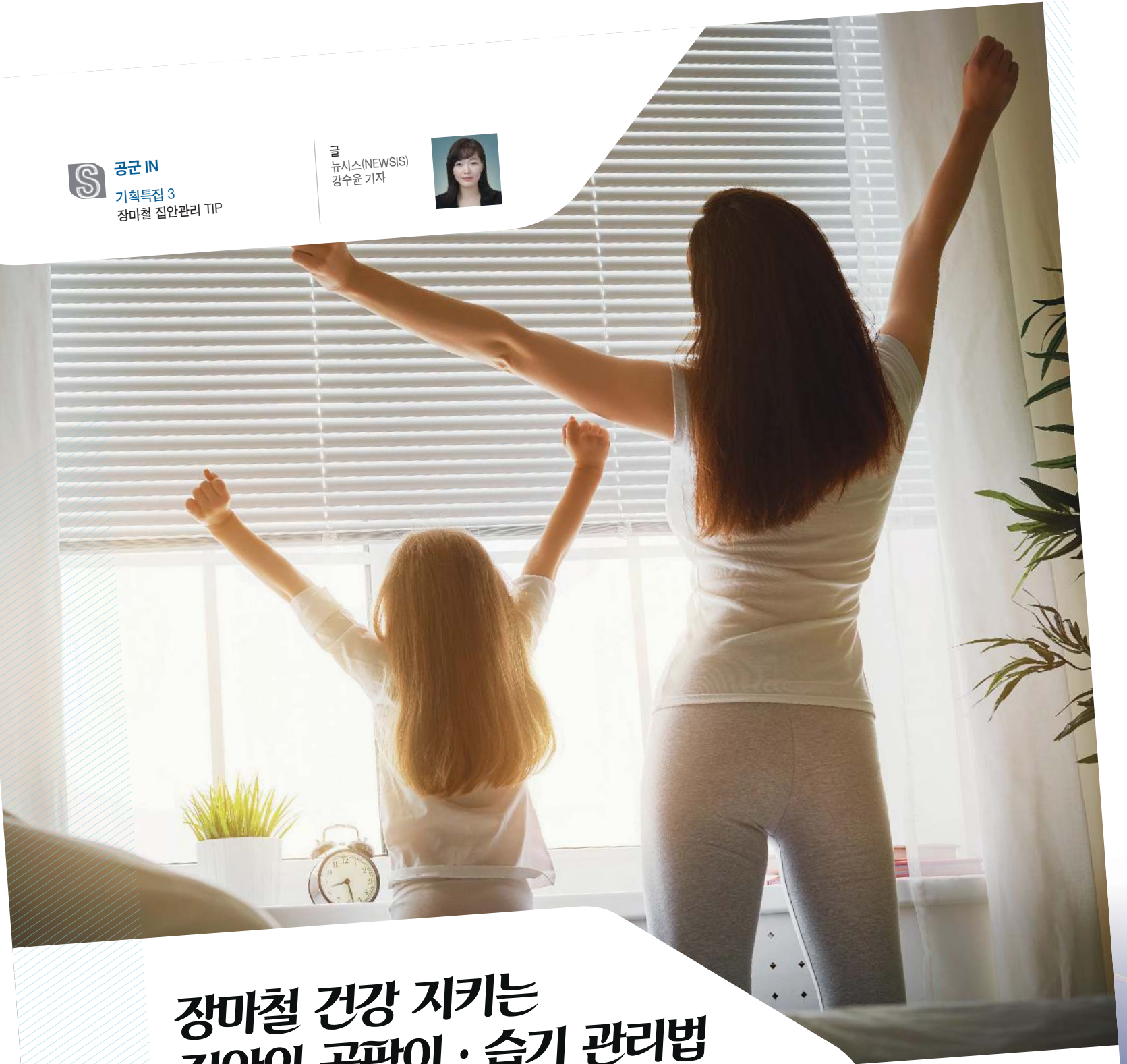


공군 IN

기획특집 3

장마철 집안관리 TIP

글
뉴스시스(NEWSIS)
강수윤 기자



장마철 건강 지키는 집안의 곰팡이·습기 관리법

늑눅한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습기와 곰팡이 제거는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주부들의 큰 고민거리다. 비가 수시로 내리는 장마철에는 습도가 매우 높아 습기를 제거하지 못할 경우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증식한다. 곰팡이에는 200가지가 넘는 독성 물질이 있어 코 막힘, 눈 가려움, 호흡 곤란,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집안에 면역력에 약한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경우 집안 습기 제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집안의 습기를 잡아라!

습기 배출을 위한 첫걸음은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고 실내 청소를 깨끗이 해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루 세 차례 30분씩 창문을 열고 실내를 환기해야 한다. 환기를 할 때는 가구 문도 함께 열려워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다. 다만 장마철에 창문을 열면 오히려 습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내 창문을 닫고 제습기를 돌려주거나 에어컨과 선풍기·보일러를 틀어 습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다.

장마로 인해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전기장판을 이불 밑에 깔고 1~2시간 정도 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바닥청소는 물걸레 대신 마른걸레로 먼지를 닦아주는 정도의 손질만 해주고, 비가 올 때는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잘 닫아야 한다. 습기는 바닥에 모이기 때문에 건조대 아래 신문지를 깔아두면 습기를 빨아들인다. 열대지방이나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과 벤자민, 보스턴고사리, 산세베리아 등 다육식물을 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공기 중 수분을 빨아들여 집안의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용도실 · 주방 · 옷장...특히 습한 곳은?

다용도실과 같이 습기가 많은 곳은 굵은소금과 커피 찌꺼기를 그릇에 담아 보관하면 습기를 제거하는데 유용하다. 주방에 생긴 곰팡이는 락스나 곰팡이 제거제를 분무기에 담아 뿌리고 티슈를 붙인 상태로 하루 뒤 떼어내 제거하면 된다. 김이나 과자봉지 등에 들어있는 건조제를 모아 부직포에 담아서 화장실에 걸어놓으면 습기를 조절할 수 있다.

눅눅해진 신발장은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두거나 신문지를 신발 안쪽에 넣어 습기를 제거해 곰팡이를 피할 수 있다. 와이셔츠나 티셔츠를 옷걸이에 걸어 말릴 때는 휴지심이나 신문지를 끼워주면 옷과 옷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통풍이 원활해진다. 장마철에는 필수방습제를 부직포에 넣어 밀봉한 뒤 가구 곳곳에 넣어두면 옷장 서랍 속 습기도 잡을 수 있다.

세탁물 건조의 경우, 비에 젖은 우산이나 신발은 말려서 보관한다. 여름 침구는 부피가 크지 않은 편이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세탁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건조법은 햇빛이 날 때 직사광선 밑에 널어 말리는 것이다. 에어컨과 세탁기는 1개월에 1회 이상 살균 청소하고 냉장고 내부에서도 곰팡이나 세균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이 없도록 관리한다.

습도가 높은 여름은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와 세균이 잘 증식하는 환경이 되기 쉽다. 실내 습도 관리와 곰팡이 제거로 장마철을 쾌적하게 보내고 가족의 건강도 지키는 것은 어떨까. **AF**





공군 IN

현지 장병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호국보훈의 달

글·편집
병장 김태성(홍보과)



지루하지 않아! 호국보훈의 달 추천 명소

어느덧 1년의 절반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들, 달력을 보니 벌써 6월이다. 뜨거운 햇살을 피하여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와 함께 의미 있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하지만 왠지 '호국보훈'이라 하면 엄숙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 그런 사람을 위해 월간「공군」이 준비했다. 호국보훈의 달 특집 나들이 명소! 재미와 교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이들은 다음 명소에 주목하도록 하자.

아시아 최대 규모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별자리 만화책을 읽고 우주에 흥미를 느끼더니 일곱 살 생일날, 꿈이 경찰에서 우주 조종사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내 아이에게 멋진 경험을 줄 수 있는 명소가 있을까? 질문에 대해 답을 먼저 하자면 "YES." 이곳은 우주뿐만 아니라 기체구조와 비행 원리 체험, 미래의 항공기술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사를 살펴볼 수 있다. 남들보다는 이른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계획 중인 유아·초등학생 가정에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을 공군 장병이 추천한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우주박물관으로 규모부터 엄청나다. 먼저,

1층에 있는 항공역사관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초창기 및 6.25전쟁에서의 활약, 현대 공군 발전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영공 수호를 위해 창공의 푸른 꿈을 가진 신념의 조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전쟁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딘 헤스 대령의 공적기념비도 있어 공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꼭 찾아볼 것.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자녀들과 애국심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2층부터는 천문학과 우주에 대해 배우는 천문우주관과 자녀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 테마관이 있다. 꿀팁이 있다면 각 테마관에는

★★★★★ 2시간이 순식간에 삭제! 사진 찍다가 하루가 다 지나갔어.
#셀스타그램 #벌써 일요일 끝

★★★★★ 어린이 취향저격! 아이들에게 조종복과 우주복도 입혀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베이비그램 #하늘이맘

★★★★☆ 맑은 제주 바다도 보고 푸른 하늘 아래 항공기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달콤한 휴가 #공군_필수



시설마다 프로그램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1층과 2층 이외에도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는 활주로를 모티브로 한 야외전시장이 있다. 수송기부터 전투기까지 총 13대의 실물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헬리콥터 등 일부 항공기는 조종석 탑승 체험도 가능하다. 조종석에 앉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려는 부모님들이 더 즐거워한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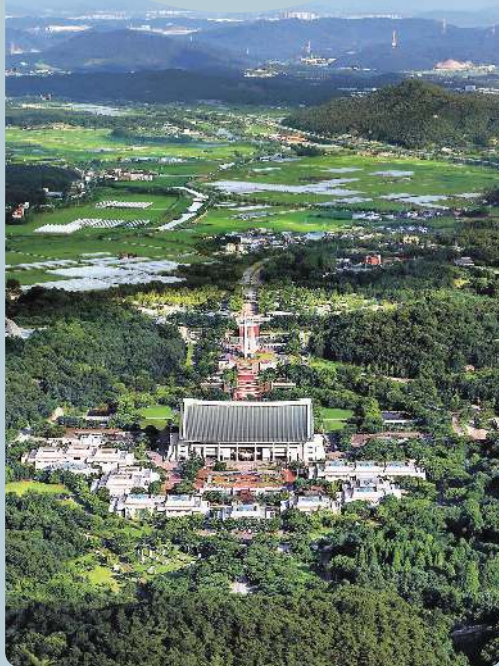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 우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을 위한 체험형 전시공간이다. 어른과 아이 모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을 6월 공군 장병들이 추천하는 첫 번째 명소로 소개한다.

개관시간 오전 09:00~18:00
(관람권 발권 마감은 종료 1시간 전)

휴 관 일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광리 산39





독립투사들의 혼을 느낄 수 있는 ‘천안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는 이들의 과거와 역사가 존재해왔기에 빛을 밝히고 있다. 어두운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대항한 나라 잃은 백성들의 숭고한 3.1운동 만세 소리를 다시 듣는 곳, 천안 독립기념관을 6월 공군 장병이 추천하는 두 번째 명소로 소개한다.

천안 독립기념관은 가장 먼저 반만년 전 우리 민족의 뿌리를 소개하며 유구한 역사와 찬란했던 독자적인 문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변화 속에서 시련을 만난 조선 후기 상황과 36년 일제 강점기 암흑의 시대 속 독립투사들의 불굴의 민족혼과 국난 극복의 노력에 관계된 자료들을 담담히 전시하고 있다.

이처럼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 역사 교육과 일제 강점기 국난을 극복한 역사 자료 수집, 전시를 관리하며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존재해왔다. 독립투사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본받을 수 있으면서 휴가도 얻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잊지 말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가족과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 **AF**

관람시간 하절기 09:30~18:00

(관람권 발권 마감은 종료 1시간 전)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장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 휴가 나온 남자친구와 함께. 꽃신 빨리 신겨줘~
#곰신 #꽃신은 언제 신겨줄 거야?

★★★★★ 가벼웠던 마음으로 왔으나 점점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는 천안 독립기념관
#역사를 모르는 민족 #미래는 없다.

★★★★★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 의미가 있는 이곳.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 아저씨는 누구야' 묻는 내
아이에게 잠시나마 선생님이 되어본다.
#아들램 #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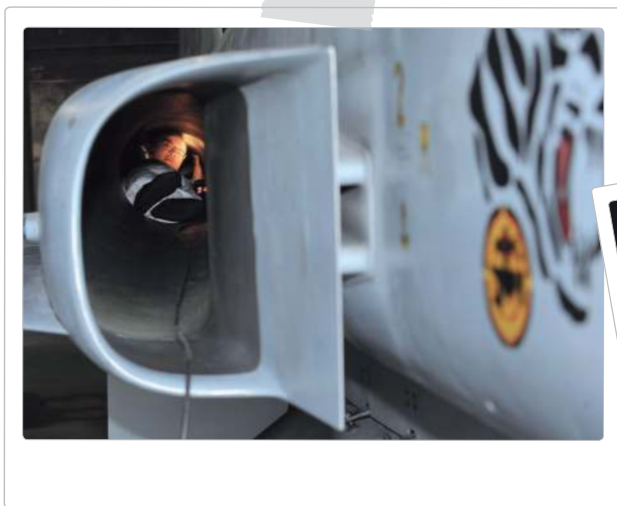
양낙규 기자의 공군 취재기 4편

‘공중전을 위한 지상의 정비전쟁!’ 공군 제8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초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강원도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 들어서면 활주로에는 아침부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열기도 올라왔다. 벙커모양의 이글루에 찾아가자 출격대기 중인 F-5 전투기는 그 위용을 과시했다. F-5 전투기 주변엔 정비대대 장병들의 정비가 한창이었다. 마치 F1 자동차경기에서 정비원들이 차량정비를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험난한 항공정비 체험 취재가 시작됐다.

F-5 전투기에 출격명령이 떨어지자 이글루 안에 대기 중이던 기장이 F-5 전투기 조종석에 탑승해 연료보급량을 확인한 후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장병들이 무유도항공폭탄 MK-82(500lbs)를 장착하기 위해 전투기 날개와 폭탄 연결역할을 하는 파일론(PYLON)을 장착했다. 기자는 장착체험을 위해 무장견인차에 실린 MK-82의 중심을 잡으며 이동했다. 하지만 무게로 인해 폭탄이 앞으로 쏠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자 무장반장의 호통이 이어졌다. 그는 “출격을 위해 수행하는 여러 정비작업 중 무장정비는 한 번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전투 시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거나 불발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방통제!”라는 무장반장의 구호가 떨어지자 열추적 항공유도탄인 AIM-9 공대공미사일을 장병 2명과 함께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AIM-9 공대공미사일을 날개 끝부분의 홈에 맞춰 장착했다. 이어 안테나와 적군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주사위 모양의 채프¹⁾ 30개와 플레어²⁾ 15개를 전투기 밑부분 상자에 채워 넣었다.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무기장착은 절반도 끝나지 않았다. M39 기총에 장착하기 위해 전투기 앞부분에서는 20mm 실탄을 바닥에 늘어놓은 상태. 출격을 위한 정비시간이 절반 이상 지나자 장병들의 손길은 더욱 빨라지기 시작했다. 실탄을 좌우측 각각 280발씩 장착해야 했다. 일렬로 연결된 실탄과 실탄 사이에 두 손가락을 끼고 전투기 앞부분 탄창 높이까지 일일이 들어 올려야 했다. 한쪽 탄창에 장착되는 280발의 무게만도 130kg. 100발 정도를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자 손목이 끊어질듯 아파왔다. 또 성급히 올리려는 마음에 실탄이 얹혀 잘 올리지 못했다. 숙련된 장병은 반대편에 실탄 280발을 모두 장착했지만 기자는 절반도 올리지 못한 상태였고 그만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다.

무기를 장착하는 장병들이 각종 무기를 장착하는 사이, 다른 정비사들은 엔진공기흡입구 점검(Intake Section)을 시작했다. 가로 25cm, 세로 35cm 정도인 흡입구에 온몸을 집어넣어 4m 전방 엔진 앞부분까지 들어가야 했다.

- 1) 레이더 에너지를 반사시켜 방해하기 위해 공중에 뿌리는 알루미늄 따위의 얇은 금속 반사체
- 2) 고열을 방사하여 적외선 유도무기체계를 기만하는 유인체

흡입구 안의 균열이나 찌그러짐 등 상태점검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기 때문이다. 몸을 누혀 차디찬 바닥을 밀고 들어가자 몸을 움직이기는커녕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엔진 앞부분까지 조명을 끌고 들어가 프로펠러 이상 유무와 못이나 돌 같은 이물질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나오자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었다. 지쳤지만 시간이 없었다. 엔진 뒷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A/B Section)까지 마치고 전투기 착륙 시 속도를 최대한 줄여주는 낙하산(DC)을 전투기 뒷부분에 장착했다.

출격 10분 전. 정비대대 기장이 조종석에 올라 브레이크, 페달, 꼬리날개, 계기판 등을 유심히 체크했다. 최종 ‘OK’ 사인이 떨어지자 이번엔 화력반과 통신반 대원들이 레이더, 통신장비 등을 일일이 체크했다. 이어 조종사가 타이어와 같은 외부점검사항을 확인한 후 조종석에 올라타자 기장이 최종 점검에 이상이 없다는 표시로 조종사에게 엄지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치켜세웠다.

엔진시동이 걸리자 이글루 안에는 엄청난 굉음이 들렸고 조종사가 출격준비를 하는 사이 항공유도대원들은 귀마개를 한 채 이글루 앞에서 수신호를 보냈다. 기자의 지상유도 수신호에 따라 항공기는 전진을 시작했고 조종사는 방향을 틀어 활주로를 향해 이동, 임무를 위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전투기 한 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야말로 지상의 정비전쟁을 한바탕 끝내야만 했다.

돌아오는 길, 어느 장병의 진심어린 소감이 귀에 맴돌았다. “전투기가 날아올라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때, 항공정비전대 일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AF**



공군 IN
조인, 조인!

글
진재훈(공감기자 1기)



사진
병장 이승하(홍보과)



본격, 공군인 자긍심 충전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 예비역 다 모여라!!

조인, 조인!

鳥人

제13화
6.25전쟁 참전조종사의 아들,
공군 학사장교회의 회장이 되다!
공군학사장교회 '윤광호' 신임회장(학사 75기)

프로로그



지난 3월, 공군 예비역 모임인 공군학사장교회의 회장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화장품과 플라스틱 용기 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주)에이텍의 대표이기도 한 윤광호 회장(학사 75기, 1980년 임관)은 취재팀을 반갑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취재지원을 위해 함께 온 장교를 보고 마치 옛날 생각이 나는 듯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 어때요?”라는 말로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를 녹였다. 시원한 녹차를 각자 앞에 두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 AF : 우선 공군학사장교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회장으로
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광호 회장 : 1999년 설립된 공군학사장교회는 벌써 18년 간 활동하며 많은 선배들의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는 뭔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기보단, 학사장교회의 본래 설립취지인 ‘친목’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에 선출되기 전 4년 간 사무총장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집행부에 요구한 원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친목단체이니 공군 선배님들을 각듯이 모신다. 둘째, 후배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여 창립 목적에 맞는 재밌는 단체가 되도록 한다. 셋째, 우리는 모군에 도움을 주되 절대로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여 공군과 상호협력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공군본부의 협조를 얻어 격오지 부대에 도서관 건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계룡대와 오산에서 현역 후배들과 친목도모 및 교류행사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 AF : 집안이 공군과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윤광호 회장 : 네, 저희 집안사람들 중에 공군 출신이 많습니다. 우선 아버지(윤응렬 예비역 장군)가 공군 조종사여서 1970년 소장으로 예편하셨습니다. 6.25전쟁 참전 조종사면서 공군작전사령관(5대)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삼촌인 아버지의 동생 두 분도 공군 출신이었습니다. 한 분은 항공관제 특기로 중령으로 예편하셨고, 한 분은 조종교관이셨는데 1954년에 항공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 한 분도 학사장교 61기로 전역하셨고, 세 명의 사촌 중 두 명은 병사로, 다른 한 명은 군의관으로 전역했습니다. 저까지 총 8명이 공군에서 근무했네요. 앞으로 제 아들이나 손자도 가급적 공군에 입대하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웃음).

✈ AF : 공군에서는 어느 부대에 근무하셨나요?

윤광호 회장 : 관리 특기(지금의 재정 특기)를 받아 15비에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군본부 관리분석처로 발령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공군본부가 서울 대방동에 위치해서 그곳에서 2년을 지냈죠. 마지막 1년은 오류동에 있는 정보부대에서 근무하며 복무를 마쳤습니다. 당시 공군 단기장교는 4년 근무했어요.



공군본부에서는 지휘관 수첩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참모총장님 이하 지휘관·참모들에게 주요정보를 배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각종 정보를 차트로 정리하는 일도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했죠. 그 당시에는 기획상황실이라고, 참모총장님 이하 수뇌부가 이용하는 것을 관리·운영하는 게 주요 업무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총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하셨거든요. 그걸 기획상황실에서 하셨기에 매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차트로 자료를 취합해서 새로 업데이트해야 하고, 청소와 사전 PT도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때는 일을 전부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해서 참 머리도 아프고 힘들었죠.

✈ AF : 옛날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광호 회장 : 총장님을 모시는 일이니까 항상 부담이 됐어요. 특히 처음에는 그 부담감이 말도 못 했죠. 처음 일하는 날에는 총장님이 모두 말씀을 하시려는데 그 주변 불들을 다 꺼버렸다가 선배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웃음). 한참 지난 뒤 어느 날에는 회의에서 누가 PT를 하려는데 램프가 꺼졌습니다. 스페어 램프로 갈려고 손을 갖다 댔는데 웬걸, 그게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총장

님이 다 보고 계셔서 얼른 회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안 뜨거운 척하고 그걸 같았죠. 나중에 보니까 손에 물집이 잡혔더라고요. 당시 부서장님이 “그것 맨손으로 하는 멍청이가 어딴냐.”라고 하시면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잘한다고 인정 받았죠. 치료받으면서 괜스레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 AF : 공군에서의 기억이 특별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윤광호 회장 : 공군본부에서 근무한 게 저로서는 특별하게 기억이 납니다. 2년 간 공군 최고지휘부가 모여 있는 본부에서 기획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회의를 주재하는지, 참모들은 어떻게 예상 질문을 준비해서 대답하는지, 브리핑 준비 등을 지척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지요. 아직까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부에는 고위 장교들이 정말 많이 계시잖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몸가짐을 더 바르게 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히 하시더라고요. 초급장교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써주시고, 온화하게 해주시고, 저도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그런 상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되새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웃음).



✈ AF : 윤광호 회장님은 ㈜에이텍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일하면서 고
충이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윤광호
회장 : 부하 직원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의
사를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 강요죠.
직원들이 제 뜻에 공감하고 공유하는 걸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게 되려면 부하 직원이 약간의 의구심이라도 있을
때 저한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해요. 그걸 만드는 게 어렵더
라고요. 그러려면 직원들이 정말 저를 편하고 자유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 어느 대통령이 장관한테 “계급장 떼
고 토론해보자!”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리
더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항상 나를 설득해보라
고 강조합니다.

✈ AF : 공군 선배로서 공군인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윤광호
회장 : 군생활을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수년, 수십 년을 군에 계시는데 이게 정말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을 가져도 모자
랄 판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괴로워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및 군에도 불행한 일이죠. 군에서 가만히 앉아서 왜
시간이 안 가니 한탄하고 있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또,
잘 찾아보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알차고 보람

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 군에
서 배운 게 참 많고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뭔가
하나라도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역을 앞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취업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제한이 있습니다. 취업도 재수, 삼수하는 사람이 많다고들 하
는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일단 아무 데라도 들어가
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제가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보면
아무래도 취업준비기간이 긴 사람보다는 어디든 현직에서
일하다 온 사람에게 눈이 가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생각이 가
장 중요하겠습지만 채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선
어떤 일이든 하고 그 뒤에 원하는 일을 찾으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 AF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광호
회장 :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8년 간 많은 선배님들이 공
을 들이신 공군학사장교회의 중책을 맡게 되어 부담이 큼니다.
무슨 큰일을 벌이기보다는 여태껏 여러 사람들이 채워온 물을
쏟지 않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공군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도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F**





공군 IN
신고합니다!

기획
하사 김재겸(홍보과)
사진
하사 장혜미
(1전비 정훈공보실)



병장 이기국

병장 54기

중앙

2015. 7. 20.

(*에이핑크 - 7월 14일)

급양병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급양병의 업무는 식재료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조리를 거쳐 병사들에게 제공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입니다.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업무 중에서 위생에 가장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위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급양병 모두가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솔, 칼, 도마 등 모든 조리 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나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후로 가장 발전한 부분은 역시 요리 실력입니다. 입대 전 몇 가지 요리 빼고는 할 수 있는 음식이 없었는데, 업무를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음식에도 공통적인 조리 방법과 조리 순서가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많이 늘고, 요리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나주에 위치한 비상할주에 파견을 갔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8명 정도 인원들에게 아침·점심·저녁을 두 달 동안 혼자 준비하고 요리한 후 뒷정리와 설거지까지 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음식을 요리하는 즐거움과 누군가 나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 느꼈던 보람, 급양병으로서 느꼈던 모든 즐거움과 보람을 통해 정말 많은 인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임자에게 한바탕

새벽에 일을 시작하고 일이 끝난 후에도 바로 쉬지 못하고 위생 점검과 위생교육과 같은 빠박하고 쉴 틈 없는 근무에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선임들과 동기, 앞으로 들어올 너의 후임들과 항상 서로 의지하면서 즐겁게 지내다보면 언젠가 뒤돌아 봤을 때 분명 값진 추억이 되어있을 거야. 군생활 동안 너의 곁에 좋은 사람들과 보람 있는 일들이 많기를 바란다.



신.고.함.니.라

인병 박진환

병773기

공양

2017. 2. 13.

(이레드벨벳 - 국지)

급양병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2년이라는 군 생활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다 조리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조리보다는 완성된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저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요리를 배워 군생활이 끝난 후 건강한 식습관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급양병으로 지원한 이유입니다.

급양병으로서 업무 숙달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아무래도 급양병이 다른 특기에 비해 몸 쓰는 일이 많아서 업무에 적응하는 초기에는 체력에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차 주어진 업무에 익숙해지고 몸이 익숙해짐에 따라 체력과 정신력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1전투비행단 병사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목표는?

입대 전에는 엄청난 과체중에 허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대 후 현재 약 20kg 정도 체중감량을 하고 체력증진을 하였습니다. 이를 꾸준히 유지·발전시켜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되는 게 주 목표입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정신적으로도 성숙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전역자에게 한마디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온 2년이 이 병장님의 인생에 있어서 헛된 시간이 아닌 소중한 추억으로 남으셨기를 바라며 전역 후 사회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AF



흡연자는 금연을 권장한다.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눈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 외에도 높은 콜레스테롤과 비만도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다. 한편, 루테인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다. 그 외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망막의 구성성분인 오메가3, 그 외에 항산화 영양소인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로돕신 등이 있다. 식품으로는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 항산화 성분이 많은 토마토, 호박, 블루베리,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등이 있다. 40세가 지나면 노안이 진행되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무리가 되는 행동을 삼가고,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통해 미리 관리하자. **AF**



42



글
공군 예비역 대령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공사31기

공군 IN
하늘을 향한 시선



: 6.25전쟁과 공군의 제공권 장악

6.25전쟁 당시 우리 공군은 전투기가 단 1대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하늘의 사나이 빨간마후라들은 L-4, 5 훈련기에 폭탄과 수류탄을 싣고 손으로 던져 적 탱크와 인민군 대열 남하를 저지시켰다. 또한 조종사들은 최단 기간 F-51 전투기 조종훈련을 받은 뒤에 39명의 조종사들이 최고 203회를 비롯한 100회 이상 출격으로 제공권을 장악하였다.

공군 작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중우세(Air Superiority) 확보에 의한 제공권 장악이다. 6.25전쟁 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고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덕분이다. 6.25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은 6.25전쟁 실패 주요 원인으로 공군력의 열세로 인한 제공권 상실로 평가하였다.

또한, 6.25전쟁 당시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의 증언과 정일권 장군의 회고록을 통해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의 제공권 장악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9월 2일 낙동강전선을 사수하고자 하였던 미 제2 및 25사단은 공군과 해군으로부터 일일 300여 회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았는데 사단장 킨 소장은 “제5공군에서 출격한 항공지원 출격횟수가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고 이번에도 우리 사단을 구해주었다.”고 증언했다. 정일권 장군도 회고록 『전쟁과 휴전』(1986년)에서 “공군의 근접 지원은 절대적이다. 공군력 지원 없이는 지상전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군의 제공권 장악이 낙동강 전선 사수를 비롯한 6.25전쟁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공군의 제공권 장악은 항공전사에 있어서 커다란 공적을 남겼다. 미 공군은 승호리 철교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500소티에 달하는 폭격을 가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때 우리 공군은 위험을 무릅쓰고 최저고도로 하강하여 철교를 단숨에 폭파시킴으로써 한국 공군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만약 빨간마후라들이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눈부신 발전과 번영은 기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가까운 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빨간마후라 선배님들이 용전분투하셨던 당시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조금이나마 닳을 위로해 드려야 하겠다. 하늘의 사나이 빨간마후라의 무용담과 전설이 후대에까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AF**





| Air-power Report |

대만의 훈련기 겸 공격기

‘AIDC AT-3 자강(自強)’

대만이 독자적으로 제트 엔진을 장비한 고등훈련기 개발에 나선 것은 1975년으로, 그때는 국영기업인 항공산업개발센터(漢翔航空工業股份有限公司: AIDC)의 전신에 해당하는 기관인 공군 항공공업국(空軍航空工業局)조차 채 실체를 드러내기 전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자 대만 공군은 그때까지 써오던 록히드 T-33 훈련기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지면서 후계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 노스롭(Northrop)사로부터 기술 협력을 얻어 그 뒤를 이을 훈련기를 개발하기로 하여 1975년에 개발 계약을 맺은 개발진들이 제안된 여러 가지 형태의 초안에서 추려낸 것은, 당시 막 군용기에 도입이 되고 있던 터보팬 엔진을 쌍발로 탑재하고 저익 배치된 주날개와 3점식 착륙 장치, 탠덤 복좌형이라는 기본 설계안이었다. 노스롭 기술진들이 가칭 VTX로 부른 이 초안은 양국 기술진의 협력 아래 1978년부터 시제기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로부터 2년 남짓 지난 1980년 7월 17일에 XAT-3 1호기가 나올 수 있었다.

문제는 VTX 개발이 시작되었을 때는 공교롭게도 미-중 관계에서 화해 무드가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결과 미국 기술진들은 대만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남겨진 대만 기술진들은 시제기가 70% 정도만 제작된 상태에서 나머지 개발을 마치고 생산 체제까지 구축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 기체에 알맞을 정도로 작은 터보팬 엔진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였는데, 다행히도 이 숙제는 미국이 대만 업체와 민간용 비즈니스 제트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1981년 5월, 개렛(Garrett) TFE731을 구해준 덕택에 해결할 수 있었다.

1980년 9월 16일, 대만 공군참모총장인 송장지(宋長志) 상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테랑 파일럿 번계건(樊健) 상교가 전방석, 이심등(李心澄) 중교가 후방석에 타고 처녀비행에 성공했을 때 자강(自強: 쯔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훈련기는 쌍발 터보팬 엔진에 슈퍼 크리티컬형 주날개를 저익 배치한 형태로, 후퇴각은 불과 7도 정도밖에 안 되는 전형적인 테이퍼 날개를 가졌다. 동체의 프레임을 강철을 써서 강도를 높이고 제작비는 낮추는 한편, 외피는 대체로 마그네슘과 듀랄루민 같은 경합금을 썼고, 일부 부품은 아주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보장되는 그래파이트 파이버(graphite fibre) 같은 첨단 재료로 제작해 중량을



Garrett TFE731

줄이는데 성공했다. 동체 내부에는 용량 1,630리터의 연료탱크가 2개 설치되고 날개 아래에는 1,136리터들이 보조 연료탱크를 2개 추가할 수 있어서 규모에 비해 충분히 긴 항속 능력을 갖추었다.

2기의 엔진은 동체 측면에 장착되었고 노즐은 동체 후방 측면에 위치한다. 훈련기이기 때문에 탠덤 복좌형이지만, 교관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30cm 높게 배치되었고, 사출좌석은 제로 탈출 기능이 있는 영국의 마틴 베이커(Martin Baker) MK.10을 장비했다. 긴 유선형의 일체형 버블 캐노피는 탑승자의 오른쪽으로 열리게 만들어 개폐 장치의 무게와 부피를 줄이게끔 신경 썼다. 콧피에는 HUD와 레이더 디스플레이, 적외선 전방시현 시스템과 고도계를 보조하는 도플러 레이더와 전술항법 시스템에 더하여 피아식별 장치까지 설치되어 당대의 일급 전투기의 조종을 익히는데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음은 물론, 필요하다면 무장을 장착하고 곧바로 공격기로 운용할 수도 있었다.



주임무는 아니지만 많은 고등 훈련기들처럼 자강도 고정 무장으로 기총을 장비할 수 있다. 7개의 파일런이 마련된 자강 훈련기는 합계 2,727kg의 무장이나 연료를 탑재할 수 있으며 MK82, MK84 범용 폭탄과 MK20 클러스터 폭탄, 로켓 런처 같은 무유도 병기를 운반할 수 있고 사이드와인더나 천검 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 나중에 개수된 일부 기체는 웡풍-II(雄風二型) 같은 자국산 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도 갖추고 있어 자강은 훈련기면서도 대함 공격 임무와 폭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어엿한 공격기지만, 대외적으로 발표될 때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훈련기로만 알려지기도 했다. 자강은 기체의 규모가 작고 아음속기라는 한계가 있을 뿐, 실로 당시 세계 기준으로는 우리의 T-50 골든 이글과 맞먹는 최고급 훈련기에 속했다.



AT-3은 대만 최초의 자국산 제트기로 태어나 현재까지 대만 공군에서만 운용 중이다. 사고로 14대를 잃고 49대가 남아(2016년 기준) 강산 기지(岡山基地)에 자리잡고 있는 공군 군관학교에서 전투기 승무원 양성 과정의 중간 고등훈련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기체는 민첩한 기동성을 활용하여 교관 조종사들로 편성된 곡예비행단 “뢰호소조(雷虎小組)”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AF**



공군 재무관리본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2017년 1월 17일,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고 하죠. 2016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설명합니다. 3차 산업을 통해 발달하게 된 정보통신(IT)기술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각종 기술과의 원활한 융합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결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5월 장미대선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의 밀접한 변화를 불러 올 이번 변화에 대해 공군가족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I.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기회를 잡은 나라들은 긴 시간 세계경제의 큰 축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혁명이라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선진국들의 독점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강점을 토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일본의 로봇 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살펴봅시다. 인더스트리 4.0은 2011년부터 독일의 민간, 정부, 학계가 뭉쳐 제조업 혁신을 목표로 내건 슬로건입니다. 창의적인 개발과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도전해오는 신흥국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까운 중국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정부주도하의 조직적인 추진으로 가장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II.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업과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IT와 통신 산업에서의 강점을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스마트사업과 제조업의 융합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의 발전으로 일자리의 창출이나 소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생활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시비서나 외국어번역기,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일본의 닌텐도사를 흑자로 만든 것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포켓몬GO) 덕분이었죠. IT산업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밀접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다보스포럼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적응도에서 세계 25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취학률, 물적 인프라 등 양적 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노동 유연성, 교육시스템의 질, 법적보호수준 등의 질적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너무 저조한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의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보스 포럼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와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III.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하는 모습

신정부의 주요 정책 역시 4차 산업혁명 육성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토대로 민간협업을 통해 기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독일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중소 제조업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보여집니다. 제조업의 강점을 넘어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IV.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섹터는?

IT 분야에서 반도체는 4차 산업육성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기술 및 데이터 확보 시 꼭 필요한 제품으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분야의 경우 스마트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충, 전기차 시장의 증가를 통해 미래형 자동차 시장의 장기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성 중심에서 친환경, 안전성 중심으로 전력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게 될 전망입니다. 화력발전소를 축소하게 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태양광 사업을 가진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원전 축소에 따른 전력 효율화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2017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공군 가족 여러분의 전반기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멋진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F**





Hollywood English

보스 베이비 (Boss Baby)



세계적 공연예술의 메카인 뉴욕 링컨 센터에는 데이비드 게펜 홀이 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는 공연장인데요, 데이비드 게펜은 누구일까요? 그는 엘튼 존, 에어로스미스를 비롯해 불후의 명곡 '호텔 캘리포니아'로 유명한 밴드 이글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과 무척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그들의 프로듀서 출신이니까요.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던 이 공연장을 링컨 센터가 최근 새 이름으로 명명한 게 데이비드 게펜 홀입니다. 2019년을 목표로 해 링컨 센터가 그 홀을 리노베이션(renovation) 하겠다고 발표하자 그 소식을 접한 데이비드 게펜이 1억 달러(약 1,150억 원)를 쾌척했고, 링컨 센터는 답례로 그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재력가인 게펜은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애니메이션 제작자인 제프리 카젠버그와도 무척 친한데요, 그들 삼총사가 세운 회사가 '드림웍스 SKG'(이하 드림웍스)입니다. 이들 삼총사의 이름을 딴 게 SKG이고요.

장편 애니메이션 <보스 베이비 The Boss Baby>는 드림웍스의 신작입니다.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역발상(逆發想)'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역발상은 다른 각도(different angle)로 보거나 상상하는, 즉 '관점 또는 발상의 전환'을 가리키는 개념이지요. 세계적 창조기업인 드림웍스는 경쟁사인 픽사나 월트디즈니처럼 '역발상 캐릭터'를 잘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부츠를 신고 활약하는 검객 고양이(<장화 신은 고양이>), 뉴욕의 동물원에서 도망쳐 얼떨결에 고양이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가는 동물들(<마다가스카> 시리즈), 추남 괴물 영웅(<슈렉> 시리즈), '몸광'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소룡과 이연걸을 뺨친 만큼 쿡푸를 잘 하는 판다(<쿡푸 팬더> 시리즈) 등의 캐릭터 말이지요. 그들이 창조한 '역발상 캐릭터'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드림웍스가 만든 <터보>의 주인공 캐릭터 '터보'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녀석은 달팽이입니다. 그런데도 시속 370km로 달릴 수 있는 카레이서입니다. 녀석을 도와주는 인간 매니저는 종종 이런 충고를 합니다.

"Think big to be big(크게 되려면 크게 생각해라)."

이때 'Think big'은 'Think creative'이기도 합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역발상 캐릭터'는 모두 '남다르게 생각하는'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보스 베이비>의 주인공 캐릭터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작품의 국내 포스터 광고 문구 가운데 하나는 '엄마 아빠보다 무서운 동생의 탄생'입니다. 3인 가족의 외동아들이 일곱 살 소년 '팀'에게 동생이 생긴 건데요, '팀'에게 얼마나 아빠보다 무서운 동생이 생긴다는 뜻이겠군요. 놀라운 점은, 이 아기를 새가 물어다 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다리 아래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녀석은 어느 날 느닷없이 굴러들어왔습니다. 아니, 자기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한 살도 안 된 이 아기는 기저귀를 차지 않습니다. 대신 007 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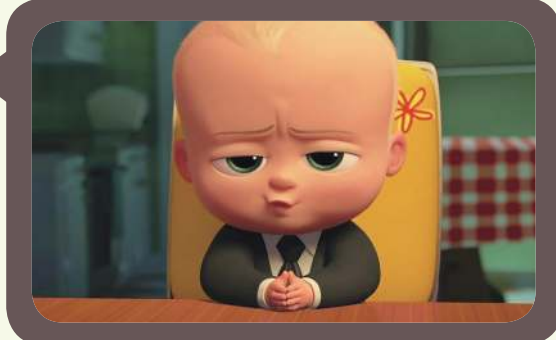


처럼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멋을 부립니다. 검정색 선글라스와 고급 시계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녀석은 <킹스맨>의 시크릿 에이전트(secret agent)를 능가하는 비밀 특수요원입니다. 녀석을 팀의 집에 보낸 조직은 '베이비 주식회사'입니다. 어떤 조직인지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이 회사가 '보스 베이비'에게 맡긴 미션은 '퍼피 주식회사'의 내부에 침투해 그들의 경영 전략을 캐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퍼피 주식회사'는 또 어떤 회사인 걸까요.

'퍼피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는 '프랜시스 프랜시스'입니다. 그의 경영전략 혹은 야욕은, 아기보다 더 사랑스럽게 생기고, 영원히 늙지도 않는 애완건을 만들어 누구나 아기 대신 애완건을 갖고 싶게 만들어 '베이비 주식회사'를 폭망, 즉 파산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이비 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인 걸까요. '베이비 주식회사'는 두 종류의 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드는데는, 재미있게 표현해보자면 '영업비밀'입니다.



그들은 두 종류의 아기를 만드는데요, 하나는 가정에 '내려 보내는' 베이비, 또 하나는 '베이비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베이비입니다. 이 아기들도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늙는 '동안(童顏) 밀크'를 마시기 때문인데요, 비록 육신은 늙지 않지만 목소리는 성인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최고경영자가 아님)들 중 한 명인 '보스 베이비'는 알렉 볼드윈의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어가 있습니다. 'There is no 'i' in team but there is in win.' 직역하면, 단어 team 안에는 철자 'i'가 없지만 단어 win 안에는 철자 'i'가 있다는 뜻이지요. 언젠가 한 농구 감독이 현역 시절의 마이클 조던에게 '나(i)를 내세운 개인 득점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팀플레이를 해달라'고 주문하자 조던이 '일단 승리(win)하고 봐야한다'면서 그렇게 너스레를 떤 것이지요. 팀과 '보스 베이비'의 공조, 즉 그들의 팀플레이에는 최초엔 '티격태격 상황'이 잦습니다. 서로가 나(i)의 존재감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 즉 악당 '프랜시스 프랜시스'의 계략과 두뇌플레이를 감당해내기 어려워지자 팀(team)은 나보다 우리(we)가 더 중요하다'는 걸 녀석들도 깨닫게 됩니다. 나머지는 스포일러여서 가려두기로 합니다. 다만, '팀'의 부모가 '프랜시스 프랜시스'를 돕는 애완건 마케팅 전문가라는 사실은 공개합니다. **AF**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이제 마스크도 트렌드! 미세먼지도 막아주는 패션, 마스크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다고 외출은 피할 수 없죠?

일반 마스크를 쓰고 나가더라도 지름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휴대가 간편하면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제품은 없을까요?

미세먼지의 위험성!

‘미세먼지’로 부르는 지름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는 PM(Particulate Matter) 10으로 표기합니다. 보통 중국발 황사, 스모그,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작은 먼지를 뜻하죠. ‘초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PM 2.5로 표기합니다. 1급 발암물질이 대부분으로,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과 혈관, 임파선 등으로 스며듭니다. 따라서 뇌혈관, 심장혈관에 쌓여 가려움증과 결막염, 피부염, 호흡기 질환은 물론 더 심각한 폐암,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야기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뇌인지기능 퇴화 속도도 빨라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준비

마스크를 구입할 때 ‘미세먼지 차단’ 혹은 ‘황사용 마스크’라는 말만 보고 덩석 구입해선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성능을 인정한 ‘KF 마스크’를 권하고 있습니다. KF(Korean Filter)란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받은 미세먼지 입자 차단 성능을 지칭하죠.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KF80은 평균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고, KF94와 KF99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차단합니다. 차단율이 높은 만큼 숨 쉬기가 쉽진 않다는 단점도 있죠. 가격 부담은 있지만 일회용 마스크를 세탁 하거나 재사용은 금물! 한번 사용한 제품은 폐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들을 살펴볼까요?



1만원대 (3개입)

ARAX <PITTA MASK>

얼굴에 완벽히 밀착되는 착용감으로 유명한데다 연예인들이 즐겨 쓰는 마스크로 '연예인 마스크'라고 불리는 피타 마스크. 폴리우레탄 신소재로 만들어 가볍고 꽃가루와 먼지를 99% 차단합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얼굴에 자국이 남지 않고, 숨 쉬기가 편한 것이 가장 큰 장점!

사이미 <AIR WEAR>

지름 0.3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를 98% 차단하는 필터를 지녔습니다. 일회용은 아니지만 내부에 교체용 필터는 8시간을 사용한 이후 새로운 필터로 교환해야 합니다. 에어웨어의 가장 큰 장점은 아시아 천만명 이상의 얼굴 형태를 연구한 끝에 디자인한 마스크로 얼굴에 밀착력이 우수하다는 것. 마스크는 세척해서 6개월 정도 사용가능합니다.



1만 8천원대 (필터 2개 포함)



1만 7천원 (필터 3개 포함)

인텍 <후이오픈가드>

일회용 마스크와 달리 반영구적인 무독성 TPE 소재에 필터를 끼워 사용하는 마스크. 인체에 무해하고 독성이 없는 소재로 부드럽고 가벼우며, 삶아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교체용 필터는 마이크로 피버 원단, 멜튼 볼로운 필터, 라미네이팅, 부직포 필터까지 4중 구조 필터로 미세먼지를 차단합니다. 필터 가격은 개당 850원 가량으로 웬만한 일회용 마스크보다 경제적입니다.

프레카 <FREKA FLOW SET>

'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환자를 연상시키는 일회용 마스크를 쓸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영국의 프레카 마스크. 신체 중 가장 복잡한 얼굴의 실루엣에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방독면과 일회용 마스크를 결합한 것이죠.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95% 이상 차단하는 N95(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 등급 필터로 든든한 마스크!

18만원대 (마스크, 에어 필터, 인서트 포함)



3만 8천원대

보그 마스크 <N99 CV>

PM2.5 초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는 N95등급의 차단 필터를 장착한 보그마스크는 별도의 필터 교체 없이도 손세탁하여 2~5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세탁기 사용은 자제). 마스크의 프린트가 워낙 다양해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각광받고 있죠!

휴대용 공기 청정기 <Air Tamer>

약 2~3시간 USB 충전 후 목에 걸고 다니면, 최대 150시간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공기 청정기입니다. 음이온이 발생하며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을 차단합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목에 걸고 다닐 수도 있죠! **AF**

10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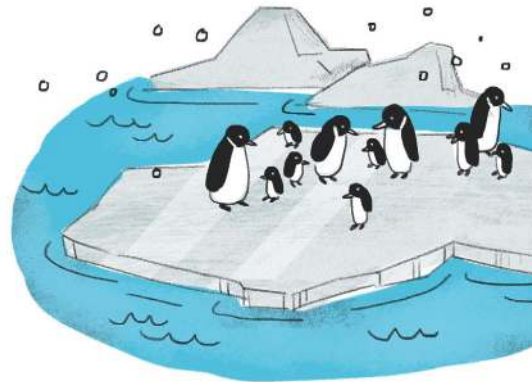




생각하는 그림

첫 번째 용기로부터

#1 남극의 펭귄들은 매우 추운 날씨 때문에 무리를 지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매년 겨울을 이겨 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펭귄 무리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 펭귄은 남편과 새끼를 위해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이동합니다.



#2 그러나 남극의 바다는 크나큰 시련의 연속입니다. 바다에는 혹한의 날씨와 빙하의 잔해들처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펭귄의 포식자인 바다사자들이 호시탐탐 사냥할 기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3 이로 인해 어미 펭귄들은 바다로 뛰어 들기 전 해안선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바다 속에 뛰어드는 어미 펭귄은 바다사자의 첫 번째 먹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에서 가장 용감한 어미 펭귄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일제히 펭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윽고 살아남은 어미 펭귄들은 사냥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와 굶주렸을 새끼와 남편을 위해 사냥감을 정성스레 뱉어냅니다.

#5 만약 펭귄 무리에서 아무도 바다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면 어미 펭귄을 기다리고 있는 새끼와 남편 펭귄은 굶거나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펭귄무리 처럼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가장 용감한 첫 번째 펭귄이 된다면 어떨까요?



#6 때로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문제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장 먼저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을까 푸념하기보다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AF**

담벼락

그 동네 번째 이야기 「우산」



교육시령부
한병대대
상병 이주룡

두엇! 과거를 바로잡는 우산 할아버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가방 안에 넣고 다닐 작은 우산 하나씩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TV에서 장마에 대비하라는 소식이 전파를 타면 내게 숙제같이 주어지던 임무가 있었다. 집 안 구석구석 녹슬고 뒤틀린 채 숨어있는 고장난 우산을 한 데 모아놓는 것. 밀린 집안 일을 하듯이 부지런히 우산의 상태를 점검해, ‘수리 요망’ 판정이 내려진 우산을 모아놓으면 그 주 주말에 귀신같이 ‘우산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추레한 바지와 공사판에서나 볼 법한 안전화에 목덜미가 늘어난 남색 티. 30°C를 웃도는 기온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걸쳐 입은 남마 같은 체크남방. “치이익·치이익...” 아스팔트 바닥을 신발 뒤축으로 쓸어내며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우산 할아버지’는 힘 있게 “우산~, 우산~”을 외쳐댔다. 그럼 나를 비롯한 각 집의 대표자들이 창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짚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지금 내려갈게요!”

집집마다 쓸모를 다해 방치해두었던 우산을 손에 쥐고 할아버지 앞에 서면, 우산 할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말없이 좌중을 둘러보았다. ‘누가 먼저 수리 받을 텐가?’라고 묻듯이. 하나, 둘, 할아버지의 손에 우산이 쥐어지면, 할아버지는 우산을 편 채 그윽하게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구석을 점검해 나갔다. “에잉... 기련한 것.” “얼마나 속았을지 했을꼬...” “많이 외로웠겠구나.” 우산의 상태를 살핀 후, 우산을 향한 무심하고 짧은 독백이 끝나면 할아버지의 손은 이내 분주해졌다. 이음새에 누르고 칙칙하게 서려있는 녹을 제거 하고서 기름칠을 했고, 천의 찢어진 부분은 새 것으로 덧대어 메웠고,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기도 했으며 휘어진 우산살은 자신이 준비해온 것으로 갈아 끼웠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할아버지는 마지막 점검으로 우산을 한번 접었다 펴 보았다. 그럼 수리 전의 느슨하고 흐물거렸던 우산이 짹짹하게 기지개를 켜며 기분 좋은 “통~!” 소리와 함께 하늘 위에 펼쳐졌다.

시간이 흐르고, 중학생이 되어 처음 맞은 여름. 그 해에도 어김없이 신발 뒤축을 질질 끌며 할아버지는 우리 아파트를 찾았다. 양손에 ‘수리 요망’의 우산을 손에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간 나는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돈도 안 되는 우산 수리를 왜 매년 하시는 거예요?” 워낙에 말수가 적은 분이라 달리 대답을 기대하고 물은 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어렸던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하, 그게 궁금하냐? 네가 어려서 잘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젊었을 때 인생을 너무 흥청망청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 돈도 가족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구나. 하루는 허망한 마음에 고장난 내 우산을 혼자 수리해 봤는데, 녹을 벗기고,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고, 휘어진 부분을 바로잡는 그 과정이 마치 열록 투성이인 내 과거를 바로잡아가는 느낌이었던단. 그래서 내 지난날을 참회하고, 늦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그럴싸하게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장마철에는 우산 수리를 다니는 거란다.” 그렇다. 벗겨내고, 조이고, 덧대고, 할아버지에게 그 과정들은 모두 자신의 양켜버린 인생을 바로잡는 업(業)이었던 것이다.

벌써 6월, 2017년의 반절이 지나간다. 새해에 결심했던 다짐들이 흐지부지되고 빼먹거릴 시기. 우리는 과연 후회 없는 과거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 혹시 저마디의 우산 할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삶을 좀 더 짹짹하게 조율할 시기는 아닐까.





제5공중기동비행단
항공정비전대
병장 이승민

비 오지 않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평소처럼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손과 가방으로 몸을 가리며 뛰어가고 있었다. 운 좋게도 나는 학교에 두고 갔던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으며 빗속을 걸어갔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정자 밑에 한 아이가 비를 피하려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아이는 중학교 1~2학년 정도되어 보이는, 평소 집 가는 길에 자주 보던 아이였다. 한 쪽 다리가 불편한지, 저는 듯한 걸음과 항상 메고 다니는 커다란 가방. 기억력이 좋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던 아이였는지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다. 그 날도 어김없이 등에는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가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 비가 조금이라도 그치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정자 앞으로 가서 말을 걸었다. “안녕? 우산이 없니?” 라고 하자 낯선 나를 경계하며 조심스레 “네.” 하고 대답했다. “내 우산 쓰고 가. 나는 괜찮아.” “아, 아나... 괜찮습니다.” “나는 집이 바로 앞이라서 우산 없이 금방 갈 수 있어. 비 그치는 거 기다리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부모님 걱정하지 않게 해드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집까지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비에 나는 쫄쫄 젖어 집에 도착했고, 어머니는 우산은 어찌고 비를 다 맞고 왔냐고 걱정하셨다. 나는 “친구 빌려줬어” 하고 미소 지으며 샤워를 하러갔다. 몸은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밤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우산을 빌려준 날로부터 2주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지난번에 저한테 우산 빌려주셨지 않았나요?” “어? 안녕! 그 날은 집에 잘 들어갔어?” “네. 덕분에 비 안 맞고 잘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산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며 들고 있던 우산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 날 하루는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로 구름 한 점 없는 짙푸른 날이었고, 그 날 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 아이는 내게 받은 우산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2주 동안 매일같이 우산을 들고 다녔던 것이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빌려 준 우산이었는데 나 때문에 괜히 2주 동안 짐을 지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했다. 하지만 미안하단 말 대신 “고마워.” 하고 눈웃음을 지어보이자 아이도 내게 커다란 미소를 보였다.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역설적이게도 아이와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우산으로 나누었던 정은 그 무엇보다도 따스했다.



전술항공통제단
1군단
일병 이승호

우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20평짜리 5층짜리 빌라가 웅기중기 모인 전주 한 촌동네에서 살았다. 빌라 주변엔 풀내음이 가득하고 담장에는 가시달린 철조망대신 자연철망 장미가 달려있으며, 빌라 앞에 화단엔 뚝뚝 뒤를 빨아먹으면 꿀이 나오는 사루비아꽃 줄이 한가득 있었다.

그 꽃들이 화창하게 피어서 눈과 입을 호강시켜 주는 계절에, 장미철은 아니지만 봄이라서 그런지 문득문득 비가 오고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옷이 젖어 흔하더라도 우산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날 따라 소낙비가 굵어지며 물방울들이 나를 때리는 수준까지 되어서 우산을 안 쓰고는 못 배기었다. 그래서 난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나서는 길에 오랜만에 우산을 들게 되었다. 빗방울이 풀잎과 땅바닥을 치는 명랑한 소리를 즐기며 총총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던 중에, 빌라 앞에 어떤 할머니가 비를 맞아 가시며 포대 위 말린 대추들을 정리하고 계시는 걸 보았다. 햇볕이 짙게 내리쬐고 먹구름 한 점 없던 날씨에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였기에 비를 예상치 못하고 대추를 미리 걷지 못한 것이리라.

앞길이 잘 안 보일 만큼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고 나는 우산 꼬트머리를 당기듯이 쓰고 있었기에 가까이 가서야 알아챌 수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칠까 생각하다가 학교 도서관에서 읽은 탈무드가 생각나고 대추가 다 물에 잠길까 하는 오지랖이 생겨서 우산을 씌워 드렸다. 좁은 1인용 우산이 나와 할머니를 씌울 만큼 드넓진 않았기에 내 왼쪽어깨를 차마 가리지 못했고 결국 나는 빗물의 축축한 이질감을 맛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대추를 같이 치워주는 내가 참 기특하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다. 갈 생각은 없었지만 말린 대추들의 뒷주습을 마치고선 할머니가 사시는 빌라의 입구까지 모셔다드렸다. 할머니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현관으로 들어가셨고 이윽고 검은 봉지에 아까 같이 가져온 말린 대추 한 봉지만큼을 싸주셨다. 나는 고작 일각정도 일한 것치고는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삭거리는 대추의 식감과는 또 다르게 말린 대추는 달았다. 한 두어개 씹으면서 나는 집에 도착했고 아까 받은 대추는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내게 물었고 나는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정말 잘했으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를 해주셨다.

나는 지나친 칭찬이 민망했다. 내가 받은 대추와 돈가스가 부끄러웠다. 우산을 씌워준 건 내게 단순 변덕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기분이 상해 있었다면, 게임이 빨리 하고 싶었다면, 엄마가 빨리 보고 싶었다면 안 씌워줬을 수도 있다. 또한 내 왼쪽 어깨가 젖는 순간에 ‘공연히 나서서 손해만 보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 이런 나의 시커먼 마음을 이웃집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실까? 겹연쩍은 마음에 돈가스 몇 조각을 먹다 방에 들어가 내 이기심을 반성했다.

그땠 어려서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위선에 대해 거부감을 처음으로 느꼈던 날이었다.

성선설, 성악설이란게 존재하지만, 난 배움으로써 선(善)해질 수도, 악(惡)해질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도화지가 어떤 색을 칠하냐에 따라 다른 그림이 나오듯이 우리의 인격 또한 어떤 가르침을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어찌보면 이웃집 할머니와 어머니는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내가 한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끔 일종의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은 위선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자는 교훈이 되었다. **AF**



책 읽는 공군



바벨의 개

- 당신이 듣지 않으면, 나는 말할 수 없어요 -

마이클 프로이프 지음
열린생각 펴냄

인간이 개와 의사소통을 하는 게 언어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물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대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생각을 단어나 문장 단위의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를 과연 개가 할 수 있을까? 마치 개와 사람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이 책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폴 아이버슨은 자신의 죽은 아내인 렉시 랜섬을 애도하며, 아내의 죽음의 의심쩍은 부분을 조사하고자 자신의 개이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로렐라이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아내의 죽음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개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내용의 주가 아니라, 주인공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부터 사건 당시까지의 일련의 내용들을 현실 시점과 과거 시점의 액자식 구성으로 풀어내고 있다. 렉시와 폴은 서로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와 아내의 관계는 점차 멀어져가게 되고 결국 아내는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 폴은 죽은 아내를 애도하며 개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추리하고자 하지만, 역

시나 개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문득, 폴은 아내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회상하게 된다. 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생각만을 주입할 뿐, 아내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그러한 일방적인 소통은 아내에게 있어 자신이 사랑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결국 아내의 말은 폴에게 들리지 않는 말이 되었고, 이는 마치 개와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되었던 것이다. 이 책의 결말부에 폴은 자신의 아내가 남긴 단서와 기억의 편린을 종합해, 아내가 자살했음을 깨닫고 매우 슬퍼한다.

이 책을 덮고 나자, 나는 아내인 렉시 랜섬이 말한 문장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당신이 듣지 않으면, 나는 말할 수 없어요.” 이 문장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 개와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진정으로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하는 것일까? 대화에서 말하기의 중요성 이상으로 듣기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느낀 바 있다면, 의사소통은 문자와 철자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사실이다. **AF**



글
장태원
방공유도탄사 2여단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도로명주소: _____

□□□□□□

공군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을 응모해 주세요.

2017

June
Vol.468

백일장 쉼다섯 번째 주제

아이스크림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seawhale98@af.mil

인 터 넷(E-mail) : afcmct@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POSTCARD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_____
- 월간 <공군> 6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_____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_____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_____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6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월간 「공군」 6월호

Quiz

잘 읽고 정답은
상단 엽서에 적어주세요~

마감일 : 6월 30일까지

1. 그리스 공군이 수송기를 파병한 부대가 창설된 그리스 공군 기지는?
① 제123비행단 ② 제13비행단 ③ 제112비행단
2. '메뚜기(grasshopper)'라는 별명의 대한민국 공군 초기 항공기는?
① L-4 ② L-5 ③ T-6

4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③ 에어포일 2. ② 스페이스 챌린지
당첨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승환 / 전남 여수시 서 현 / 경기도 남양주시 유민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춘성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사이버테러·군사보안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c.mil.kr)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 (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2017

June
Vol.468



보내주신 독자엽서 중
매월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분께
'에코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